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 연구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주 선 이

2020년 2월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 연구

지도교수 김 한 일

주 선 이

이 논문을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2월

주선이의 사회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u>박 여 성</u> ㉠
위 원	<u>함 경 수</u> ㉠
위 원	<u>김 한 일</u> ㉠ ㉡한일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2020년 2월

A Study on Writing Digital Autobiography of New Silver Generation

by Seoni Joo

(Supervised by Professor Hanil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ocial Education[Master of Storytelling].

2020. 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Thesis director, Hanil Kim, Prof. of Storytelling
.....

.....
김한일
.....

.....
Date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1. 뉴실버세대와 자아통합	6
1) 뉴실버세대의 욕구와 자아통합	6
2) 인생회고를 통한 자아통합	8
3) 자서전 쓰기와 자아통합의 효과	10
2. 자서전 쓰기와 내러티브	13
1) 자서전의 특성	13
2) 내러티브 개념과 자서전 쓰기	15
3. 디지털 내러티브와 디지털 자서전	17
1) 디지털 내러티브의 특성	18
2)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방식의 변화	19
3) 디지털 자서전의 서술적 자아	23
III.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고려사항	26
1. 과거 갈등을 주제로 한 인생회고	27
2. 플롯 중심의 내적 구조 구성	29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자기표현	31
4. 다양한 소통의 목적 실현	32

IV. 디지털 자서전 쓰기 사례 분석과 제안	34
1. 온라인 자서전 쓰기 사례와 분석	35
1) 해외 사례 <The Life Writer>, <Autodotbiography>	35
2) 국내 사례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40
2. 영상 자서전 제작 교육 사례와 분석	43
1) 해외 사례 <The Storycenter>	43
2) 국내 사례 <영상 자서전 제작>,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46
3. 사례 분석 결과의 함의	49
4. 디지털 자서전 쓰기 단계 제안	51
V. 결론	54
1. 요약과 결론	54
2. 제언	57
참고문헌	59
Abstract	62

표 목차

〈표 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	7
〈표 2〉 회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10
〈표 3〉 자서전 쓰기의 의미	12
〈표 4〉 로권의 자서전 규약	13
〈표 5〉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도구	20
〈표 6〉 디지털 자서전 쓰기 평가표	36
〈표 7〉 해외 자서전 글쓰기 사례 비교	36
〈표 8〉 해외 자서전 글쓰기 사례 평가	39
〈표 9〉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제작 과정	41
〈표 10〉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평가	41
〈표 11〉 <The Storycenter> 자서전적 영상 평가	45
〈표 12〉 국내 영상 자서전 사례 제작 과정 비교	47
〈표 13〉 국내 영상 자서전 사례 제작 과정 평가	48
〈표 14〉 디지털 자서전 쓰기 구성 요소	50

그림 목차

〈그림 1〉	인생회고와 자아변화	9
〈그림 2〉	내러티브의 세 가지 개념	16
〈그림 3〉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환경의 변화	22
〈그림 4〉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저장	27
〈그림 5〉	그래픽 오거나이저(Graphic Organizer)	28
〈그림 6〉	플롯 다이어그램(Plot Diagram)	30
〈그림 7〉	디지털 자서전을 구성하는 매체	31
〈그림 8〉	디지털 자서전을 통한 소통	32
〈그림 9〉	The Life Writer 창작물의 예	37
〈그림 10〉	인생낙(樂)서 ‘나만의 이야기’ 글쓰기 화면	41
〈그림 11〉	디지털 자서전 쓰기 단계	52
〈그림 12〉	자서전 형태 선택	53

【국문초록】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 연구

주 선 이

제주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스토리텔링학과

지도교수 김 한 일

자서전 쓰기는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험을 재음미하여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죽음 앞에서 맞게 되는 절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을 바라보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인생 후반기에 자서전 쓰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오래전부터 국내외에서 자서전 쓰기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진·영상으로 자서전 만들기, 모바일을 통한 자서전 쓰기 캠페인도 소개되고 있다. 개인의 디지털 자료를 모아 디지털 창작 도구의 도움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서전을 제공하는 서비스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서전도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자서전의 대중 확산이 늘어나고 있지만 디지털 자서전에 대한 개념 정립과 의의에 대한 논의조차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서전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론적 배경 연구를 통해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했다.

첫 질문은 “누가 디지털 자서전을 쓰는가?”라는 글쓰기 주체인 뉴실버세대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제 1, 2 베이비붐 세대에 해당하는 뉴실버세대는 독특한 디

지텔 향유 방식의 미디어 욕구를 보이며, 사회참여, 여가활용, 자기표현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

다음은 “뉴실버세대는 왜 디지털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라는 디지털 자서전을 쓰기 목적에 관한 질문이다. 그 목적은 첫째, 에릭슨(Erikson)에 따르면 노년의 발달과제인 자아통합을 위한 것이다. 버틀러(Butler)는 인생회고를 통해 자아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고 했다.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자서전 쓰기를 통해 동일한 경험을 얻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내러티브를 기반으로 한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본질인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뉴실버세대의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려 놓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표현의 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이는 뉴실버세대가 가진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디지털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질문 “디지털 자서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는 디지털 자서전이 가진 언어적 형식과 글쓰기 방식에 관한 것이다. 자서전 쓰기는 사건과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줄 수 있는 플롯을 가진 이야기로 구성하고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해야 한다. 자서전 쓰기란 플롯 중심의 내적구조를 만들어 가며 내면의 대화를 통해 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적 구조를 지닌 역동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던 순간의 과거 자아와 이미 사건을 겪은 현재의 자아가 만나 사건을 재구성하며 미래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마지막 질문 “디지털 자서전은 오늘날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는 디지털 자서전의 양상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화로 인해 글쓰기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글쓰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편집이 쉬워졌다. 또한 전통적 자료 대신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고, 선형적 글쓰기 방식 대신 재조합 가능한 구조화된 글쓰기로 바뀌었다. 텍스트 형태의 알파벳 코드 대신에 형상이나 음향 코드를 이용한 글쓰기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론적 배경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자아통합을 이루기 위한 디지털 자서전 쓰기에서 고려할 점을 4가지로 제안한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은 자신의 인생회고이며, 미해결된 갈등에 대한 기억을 주제로, 인생 전체의 주기를 순차적으로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

소재의 플롯구성이 있는 이야기 줄거리로 볼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으로 공감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자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상호작용성이라는 속성 덕분에 다양한 소통의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고려사항에 기초하여 디지털 자서전 쓰기 평가표를 만들어 사례분석을 진행했다. 평가항목에 따라 국내외 디지털 자서전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디지털 자서전 쓰기는 글쓰기 전(pre-writing), 글쓰기(during writing), 글쓰기 후(post-writing) 과정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서전 쓰기 과정을 3단계로 제안했다.

글쓰기 전 단계는 미해결된 갈등의 기억을 주제로 평가, 종합하는 인생회고 단계이다.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다음 단계에서 본격적인 글쓰기를 통해 원형이야기의 플롯을 구성한다. 글쓰기 후 단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매체에 맞게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원하는 표현방식으로 결과물을 제작한다.

연구를 통하여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듣기’를 통한 소통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마음속에 숨겨둔 미해결된 갈등의 사건 현장에 있었던 과거 자아의 이야기를 현재 자아가 들어주고, 재해석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자아는 함께 정체성을 회복해 간다.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표현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외부와의 소통으로 사회참여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편리와 속도를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 ‘깊게 들어주고, 오래 들여다보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디지털 자서전의 진정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일상과 사회에서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 이민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통적 자서전 쓰기에서 소외되었던 이들을 위해 다양한 도구 개발과 방법 연구에 본 논문의 기획 정신이 반영되길 희망한다. 시각적인 장애를 가진 이들이나 손으로 자서전을 쓸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음성으로 완성하는 자서전과 생애 시기별 자서전 등 새로운 방식의 디지털 자서전에 대한 연구도 기대해본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¹⁾에 진입한 국가 중 하나다²⁾. 인생 후반기에 자서전 쓰기가 주는 긍정적인 효과로 오래전부터 자서전 쓰기 연구와 프로그램이 개발, 활용되었다. 자서전 쓰기는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과 같다. 이 과정에서 과거 경험을 재음미하여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평가하고 수용할 때 긍정적인 자아상을 얻게 된다. 그 결과 절망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의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측면을 바라보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³⁾.

국내에서 자서전 쓰기는 지자체나 공공기관, 출판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자전적 이야기를 모아 출간하기도 한다⁴⁾. 인천 사회복지관에서는 자서전 프로그램을 진행 후 수강생들의 글들을 주제별로 모아 한권의 책으로 출판했다⁵⁾.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의 자서전 쓰기 과정은 이론과 글쓰기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합평과 퇴고를 거쳐 자서전을 마무리했다⁶⁾. 자녀들의 의뢰로 부모의 삶을 기록하여 전문 출판업체를 통해 자서전을 출간하는 경우도 있다⁷⁾.

- 1) KDI 경제정보센터, 2015년 1월, UN은 고령화사회·고령사회·초고령사회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UN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로 분류한다. 또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다시 20% 이상까지 올라가면 해당 국가를 후기고령사회 또는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다.
- 2) 강인수, 한국경제(2016, 8, 12),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087711b>, 고령화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일본이 가장 짧은 36년이 걸렸다. 그런데 한국은 이를 10년이나 단축한 26년 만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 3) Erikson, E.H.(197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pp.104-105
- 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2219.html
- 5) 인천 부평중부종합사회복지관의 ‘내 영혼의 자서전’, 20강 프로그램이다, <http://omn.kr/o6z7>
- 6) 2018년 영등포50플러스센터에서 “16주에 걸친 내면여행-자서전쓰기” 진행했다.
- 7) www.memorialbook.kr/default.asp?sub_code=body01 사회적기업 꿈틀에서 제작대행하는 자서전이다. 전문스토리텔러가 2회에 걸쳐 직접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과거 사진들을 스캔해서 200페이지의 분량의 가정 소장용 책 12권과 e-book, 슬라이드영상, 스캔한 사진과 인터뷰 녹음을 담은 USB 메모리를 전달하는 형태이다. 보통 2~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며 가격은 440만원이다. 인터뷰 전문가와 제작 총괄 편집자, 디자이너가 함께 작업을 진행한다.

책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진, 음악, 만화 등 예술 매체를 이용한 경우도 있다. 인천시에서는 삶의 역사가 깃든 사진과 글을 엮어 책자로 만드는 강좌를 운영했다8). 강화군에서는 전 생애를 돌아보는 음악 회고록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9). 부천시에서는 저자들이 자서전에 직접 만화를 그려 만화자서전을 출간했다10).

최근 들어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스마트폰 사진·영상으로 자서전 만들기, 모바일을 통한 자서전 쓰기 캠페인도 소개되고 있다. 국내 미디어 센터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자서전 만들기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대전11)과 성남의 미디어 센터에서는 시니어를 대상으로 영상 자서전 만들기 강좌를 진행했다12).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에서도 자신의 일대기를 포토북과 동영상에 담아 비주얼 자서전을 제작하는 과정을 진행했다13). 온라인 사이트에서 개인의 디지털 자료를 모아 디지털 창작 도구의 도움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자서전14)을 제공하거나 가족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자서전15)도 등장하고 있다.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년세대가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자아통합을 이루고, 주변의 인정을 회복하여 외부와 소통하고, 그 결과 생애사적 역량을 개발하여 노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한다.

8)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12

9) 2011년 강화문화관에서 “나의 음악자서전 만들기”라는 12회 강좌를 진행했다.
www.ganghwa.go.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jsessionid=9D0CA1783FFB0F88A3FAFA8DA069DB8A?msg_seq=4019&bcd=classroom&pgno=155

10) “늦깎이 학생 만화자서전” 출판 기념회를 통해 166쪽의 자서전과 32쪽의 만화도록을 제작했다.
www.localnaeil.com/News/View/505143

11) 4차에 걸친 시니어 대상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회고록 제작 교육이다. 영상기획과 원고작성, 기록영상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법, 영상편집, 영상출력 및 발표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https://kcmf.or.kr/comc/html/sub/before_register-view.php?globalCenter=daejeon&PCod e=00002962

12) 2018년 4월 강좌로 일일 2시간 총 16시간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는 4만 8천원이다.
www.snmedia.or.kr/education/

13) 2019년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사진·영상 자서전 제작 전문가과정”을 개설하여 7회 동안 사진과 영상으로 비주얼 자서전 제작하는 기법을 교육했다.
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672627

14) www.thelifewriter.com/about-u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모든 콘텐츠를 서사 구조화된 장별로 나눠 회고록을 만들어 준다.

15) <https://50plus.or.kr/detail.do?id=1105490>, ‘인생낙(樂)서’라는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을 사용하는 ‘부모 자서전 쓰기’ 캠페인이다.

디지털 매체와 기술의 변화에 따라 자서전은 예술매체와 결합하여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고 있으나 디지털 자서전에 대한 연구는 개념 정립과 이론 체계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¹⁶⁾.

본 연구는 디지털 자서전의 대중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디지털 자서전에 대한 의의와 역할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디지털 자서전의 연구는 사회 변화, 디지털 매체와 과학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역사적인 배경도 가진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 연구는 자서전의 장르적 특성과 글쓰기의 구성과 관련된 인문학 외 다른 학문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인문학과 심리학, 컴퓨터 공학에 걸쳐 있는 다학제간 연구라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본다.

첫 질문은 “누가 디지털 자서전을 쓰는가?”라는 글쓰기 주체인 뉴실버세대¹⁷⁾에 대한 것이다.

두 번째 질문은 “뉴실버세대는 왜 디지털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라는 디지털 자서전을 써야 하는 목적에 관한 것이다.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자서전은 어떻게 써야 하는가?”하는 디지털 자서전이 가진 언어적 형식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 질문은 “디지털 자서전은 오늘날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하는 디지털 자서전의 양상과 특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대한 답을 탐구한 뒤 마지막으로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디지털 자서전 의미에 맞도록 단계별 쓰기 과정을 제안한다.

16) 원철(2013), 「차이와 생성으로서의 디지털 서사: 공감각적 내재성」, 인문연구, 제69호, 530쪽에서 는 디지털 자서전의 개념을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주위에서 자료들을 가져와 디지털 도구를 이용하여 편집해서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본다.

17) 한국에서 1945년 이후에 태어난 노인세대를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라 부른다.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서전 쓰기 과정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자서전이 가지는 형태적인 부분보다 글쓰기 과정 전후로 일어나는 내면적 변화와 의미에 중점을 둔 것이다.

먼저, 디지털 자서전 쓰기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고려사항을 도출하여 평가항목으로 선정한다. 그 다음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활용되는 디지털 자서전의 형태와 글쓰기 과정이 자아통합을 이루고 뉴실버세대가 가진 욕구와 관련된 부분을 평가, 분석한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3가지 관점에서 디지털 자서전과 관련된 이론을 정리한다. 첫째, 대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자서전을 쓰는 새로운 저자인 뉴실버세대의 특징과 자아통합의 과정 및 자서전 쓰기와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자서전 글쓰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 자서전의 구성 자질을 살펴본다. 자서전은 이야기 형식의 하나이므로 내러티브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도 살펴보고 자서전 쓰기에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찾아본다. 마지막으로, 컴퓨터 공학 관점에서 기존의 내러티브와 디지털 내러티브를 비교해보고, 글쓰기 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적용하면서 글쓰기 방식과 서술적 자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고찰한다.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얻은 지식과 원리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4장에서는 국내외 디지털 자서전 사례들이 뉴실버세대의 자아통합을 증진시키고 욕구에 적합한 지 평가하고 분석한다. 앞장에서 도출한 고려사항을 글쓰기 전, 후 단계별로 평가 기준으로 나누고 이를 8개의 평가항목으로 사용한다.

다음으로 국내외 온라인 자서전 쓰기 사례로 <The Life Writer>와 <Autodotbiography>,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를, 영상 자서전 제작 교육 강좌 사례로 <The Storycenter>와 <영상 자서전 제작>,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을 조사하고 이를 각각 평가 항목에 따라 분석한다. 이어서 분석 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이루는 구성 요소와 쓰기 단

계를 제안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자서전(自敍傳, Autobiography)이란 저자가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인성의 변화 과정을 담은 생애 이야기이다¹⁸⁾. 이는 화자가 인생 전반에 걸쳐 화자 자신에게 중요한 것, 직접 체험한 것 또는 자신의 세계관을 표현하는 생애 이야기(life story)를 의미한다.¹⁹⁾
- 뉴실버세대(New Silver Generation)은 한국의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를 의미한다.
- 자아통합감(Integrity)은 노년기 자아가 과거 자아가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여 자아를 존중할 때 갖는 느낌이다²⁰⁾.
- 디지털 내러티브(Digital narrative)란 디지털 매체나 기술을 이용하거나 디지털 환경에서 일어나는 내러티브이다²¹⁾.
- 디지털 자서전(Digital autobiography)은 디지털 기술을 매체 환경이나 표현 수단으로 삼아,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인성의 변화 과정을 담은 회상체의 생애 이야기이다.

18) 필립 로죈(Philippe Lejeune), 윤진 옮김(1998), 『자서전의 규약』, 17쪽의 내용 정리

19) 자서전은 아니지만 자서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형태도 많다. 자서전이 자신의 삶의 처음부터 현재까지를 다루는 반면 자신의 삶에서 몇 가지 주요 사건에 초점을 맞춘 것을 개인적 서사(Personal narratives) 또는 자서전적 서사(Autobiographical narratives)라고 한다. 자신의 삶에 관한 글의 또 다른 형태로 회고록(Memoirs)을 들 수 있다.

20) Erikson, E. H.(1979)의 동일 도서, 104-105쪽

21)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정의를 응용했다.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정보화 시대의 새로운 매체 환경에서 창작되고 향유되는 스토리텔링, 즉 디지털 기술을 매체 환경이나 표현 수단으로 수용하여 이루어지는 서사행위이다. 이인화(2003), 『디지털 스토리텔링』, 해냄, 13-14쪽.

II. 이론적 배경

디지털 환경의 이용과 매체의 변화로 자서전 쓰기 방식은 쉬워지고, 자서전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또한 글쓰기 플랫폼이 웹과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매체에 최적화되면서 저자와 독자의 접근이 좋아지면서 다양한 공감과 협업을 끌어내고 있다. 본 장에서는 실제 글쓰기의 변화를 경험하는 21세기 노년세대가 기존의 세대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과 욕구를 가지고 있는 지, 이는 디지털 자서전 글쓰기의 변화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지 함께 살펴본다.

1. 뉴실버세대와 자아통합

1) 뉴실버세대의 욕구와 자아통합

한국에서는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와 2차 베이비붐 세대(1968~1974년생)를 뉴실버세대라 부른다. 이들은 한국에 해외 대중문화가 유입되고 한국 영화와 대중음악이 전성기를 맞았던 1960-1970년대에 유·청년기를 보내며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경험하였으며, 대중매체에 익숙하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소비활동이 활발했다. 이전 세대와 달리 경제적 부와 신체적 건강을 겸비하고 능동적으로 새로운 것을 찾고, 교육 수준이 높고 적극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모색한다²²⁾. 이들은 높은 사회 지향성으로 문화 변화를 주도하고 변화에 개방적이며, 다른 세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등 사회 참여에 적극적인 세대이다²³⁾.

커뮤니케이션 및 표현 기술의 발전,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은 뉴실버세대에게 새롭고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 인해 뉴실버세대는 디지털 환경에 많

22) 삼성경제연구소(2011)는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에서 소비 형태와 성장환경, 경험, 경제적 여건, 관심사 등을 근거로 뉴실버세대의 특징을 '건강, 가족, 여가, 사회참여, 디지털라이프'라고 선정하였다.

23) 이충훈, 정재욱(2014), 「세대간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뉴실버세대와 넷 세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4호, 49-74쪽

이 노출되고, 디지털 미디어가 보편화되면서 독특한 디지털 향유 방식의 미디어 욕구를 보인다²⁴⁾. 또한 사회참여, 여가활용, 자기표현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²⁵⁾.

그러나 이들에게도 이전 세대와 동일한 노년기에 이뤄야 할 과제가 있다. 에릭슨(Erikson, 1979)에 의하면 인간은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전생애를 거쳐 발달한다. 그는 인간의 생애 마지막 단계인 노년기에 이루어야 할 발달과업으로서 자아통합을 이뤄 절망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표1>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8단계²⁶⁾

단계	심리사회적 위기	시기
1단계	기본적 신뢰 대 불신(Basic Trust vs Basic Mistrust)	출생 ~ 1세
2단계	자율성 대 수치/의심(Autonomy vs Shame & Doubt)	1 ~ 3세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Initiative vs Guilt)	3 ~ 6세
4단계	근면성 대 열등감(Industry vs Inferiority)	6 ~ 12세
5단계	정체성 대 역할 혼란(Identity vs Identity Diffusion)	12 ~ 20세
6단계	친밀성 대 고립(Intimacy vs Isolation)	20 ~ 35세
7단계	생산성 대 침체성(Generativity vs Stagnation)	35 ~ 65세
8단계	자아통합 대 절망(Integrity vs Despair)	노년기

노인들은 자신의 죽음에 직면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의미가 있었는가?” 질문하며 회고의 욕구를 느끼게 된다. 이 때 과거 인생 경험 중 잘못이 있더라도 자신의 삶을 의미 있고 만족스러운 것으로 인식하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있는 그대로 후회 없이 받아들이고, 인생의 피할 수 없는 종말로 죽음을 받아들이

24) 허원희(2012), 「뉴실버세대의 디지털미디어 수용과정에서 감성적 가치 요인이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0년대 컴퓨터 및 인터넷문화, 2000년대 모바일 문화, 2010년 이후 스마트폰 및 SNS문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25) 강성관, 반수경, 차준섭(2013), 「뉴실버 세대를 위한 융합형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13-26쪽 참고. 2011년 한국의 60세 이상 인터넷을 이용한 사람의 비율은 35.9%로, 2007년(17.4%)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뉴실버세대는 '자신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다양성을 추구하며 적극적인 자기표현을 주저하지 않는다. 인터넷을 통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상호 정보와 의견교환을 매우 중요시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다. 인간관계의 상당 부분에서 메일, 채팅, 게시판 등 첨단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사용한다.

26) Sarah Poole, John Snarey(2011), 「Erikson's Preschool Stage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pp.599-603의 제목을 번역 정리한 표

게 되면 통합감이라는 정점에 다다른다.

반면, 살아온 삶이 무의미하거나 실패했다고 부정적으로 느끼게 되면 이제는 다른 삶을 다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에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 즉, 자아통합감이란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아를 존중할 때 갖는 느낌이다. 그 결과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로 보고 수용하며 사람들에게 대한 깊은 배려를 통해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된다²⁷⁾.

2) 인생회고를 통한 자아통합

자서전 쓰기의 주체인 뉴실버세대는 디지털 미디어 및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와 함께 자아통합이라는 과거 노년세대와 동일한 노년과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노년의 자아통합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지 알아본다.

버틀러(Butler, 1963)에 따르면 노년기 인생회고는 자아통합을 성취하는 주요 수단이다. 버틀러는 인생회고를 과거 경험의 의식 중 특히 미해결된 갈등을 향해 점진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럽고 일반적인 정신과정이라고 정의했다²⁸⁾. 노년기에 접어드는 인간은 죽음과 자신의 붕괴라는 불가피한 현상을 자각하면서 지나온 일생을 회고하여 성격을 재조직, 재통합하려는 행동경향을 보인다. 이들은 앞선 경험과 의미에 대해 재인식하여 이를 다르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장한다. 즉, 인생회고란 과거의 경험들을 의식적으로 불러내어 풀지 못했던 갈등을 다시 점화시킬 수 있는 심리과정으로, 과거의 경험 중 의미 있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것을 말한다.

웹스터와 영(Webster & Young, 1988)은 인생회고가 노년세대에서 가장 분명한 것이지만 인생 단계와 상관없이 모든 개인에게 가능한 활동이며, 어떤 단계에 특정화된 과업이라기보다는 발달과정으로 보았다²⁹⁾. 인생회고는 과거 경험을

27) Erikson, E. H.(1979)의 동일한 책. 에릭슨은 자아통합을 정확히 정의하기 부족하지만 몇 가지 마음의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는 자신과 자신의 생활사와 사람들에 대한 수용과 먼 시대 살았던 다른 것을 추구한 남녀들과의 동료애이며 한 인생은 자신만의 책임이라는 사실에 대한 수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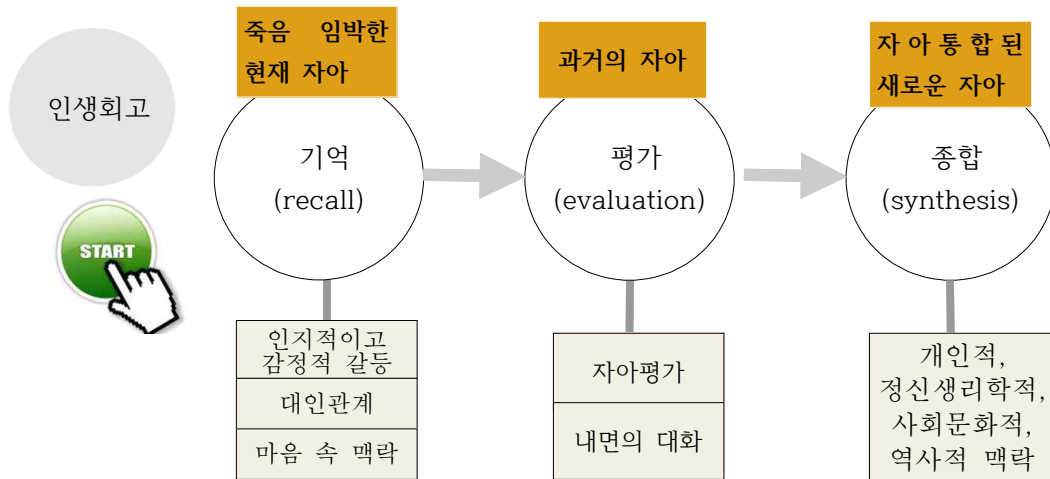
28) Butler, R.(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vol. 26, no. 1, pp. 65-76 버틀러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노인학자로 '인생회고'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추억의 가치를 강조한다.

29) Webster, J. D. & Young, R. A.(1988), 「Process Variables of the Life Review:

능동적으로 분석, 평가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임박한 자신의 생물학적인 죽음에 대한 인식의 반응이기도 하다. 인생회고는 과거를 재구성, 평가하며 인생 전체의 과정을 다룬다.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을 포함하고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 속 맥락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³⁰⁾.

웹스터와 영이 인생회고를 발달적 구조로 본 관점은 에릭슨이 인간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누고 심리사회적 위기와 발달 과업을 함께 제시한 관점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아평가는 비형식적이며, 빈번한 내면과의 대화로 얻은 결과이다. 따라서 인생회고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개인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정신생리학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을 포함한다.

죽음에 임박한 자아가 인생회고를 시작하여 대인 관계나 마음속에 남은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갈등을 기억하여, 내면의 대화를 통해 갈등을 재평가, 종합하여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통합하여 새로운 자아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처럼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 인생회고와 자아변화³¹⁾

Counseling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6, no. 4, pp. 315-323

30) 이현림, 배강대(2004),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 연구, 제 5권 2호, 409-421쪽. 웹스터와 영은 인생회고와 회상을 구분하여 비교 설명하였다. 회상이 인생회고의 일부이지만 수동적인 과정으로 보았다. 노년 회상의 기능은 위안과 사회적 교환의 자원이며 안정적이고 독창적이며 영구적인 자아상 유지에 필요하고, 과거의 개인적 갈등을 해결하는 발달과업이다. 회상은 사진이나 기념품과 같은 물건들에 의해 쉽게 자극되어 매우 즉흥적이며, 한 사건에서 다른 사건으로 관심이 쉽게 변하여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회상된 사건끼리는 일관된 주제를 갖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재구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1) 인생회고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아변화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도식화했다.

심리학과 상담학 연구에서는 회상 기반의 프로그램을 개발, 실행하여 그 효과를 보고한 연구 사례가 있다. 노인의 회상과 자존감의 관계를 연구한 문헌의 제목을 <표 2>에서 정리했다. 결과를 살펴보면 회고[회상]기법을 도입한 집단 참여프로그램은 과거에 대한 회상 경험이 현재 상태에 대한 심리적 적응을 돕는데 높은 효과가 있고, 삶의 의미 추구하고 의미 발견이 안녕감(well-being)의 주요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회상 기법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을 향상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32) 33)}.

<표 2> 회상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은정(1992)	노인의 회상을 통한 자아통합현상에 관한 연구
김수영(1998)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김현주(2000)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배강대(2003)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김남원(2010)	회상집단상담이 노인의 자아통합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3) 자서전 쓰기와 자아통합의 효과

인생회고가 노인의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켜 자아통합의 수단이 된다면 자서전 쓰기에서도 동일한 경험을 해야만 자아통합에 이를 수 있다. 자서전 쓰기의 효과에 관한 연구에 관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들은 자서전 쓰기 활동 전후의 심리적인 차이를 비교하며 결과를 얻는 과정을 거쳤다.

32) 이현림, 배강대(2004)의 동일논문. 회상 기법 프로그램은 의도적으로 환자의 추억을 일깨우는 심리치료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자서전적인 글쓰기, 가계도 작성, 가족 스토리 이야기하기 등을 꼽을 수 있다. 앨범, 옛날 편지, 기념품 등 추억의 물건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런 물건들은 풍성한 정보의 원천이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법의 도구가 된다.

33) 65세 이상 노인 30명을 대상으로 노인우울척도 검사와 자아 존중감 검사를 실행 후, 회상기법 활용하여 아동기, 10대, 20대, 성인 중후기를 먼저 회상한 뒤 전 생애 인생회고 곡선을 그려서 지나온 인생의 전 생애를 회고하고 가치를 부여하도록 했다. 지나온 생애의 의미와 새 삶의 의미를 찾아 나누며 집단 상담을 마무리 한 뒤 노인의 우울증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지행중(2011)은 자서전 쓰기를 통한 노년 세대의 생애사적 재구성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생애사는 삶의 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삶의 이야기이다³⁴⁾. 삶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년 세대는 자신의 전생애발달 과정을 성찰해보는 기회를 갖게 한다. 생애사적 역량을 계발하면 노년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적 체험을 경험하여 자아통합에 이를 수 있게 한다.”³⁵⁾

정승일(2012)도 노년들의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들에게서 동일한 연구 결과를 얻었다.

“노인들이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회상을 통해 새로운 세계관으로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 자서전 쓰기가 자아통합에 이를 수 있음을 이끄는 도구가 된다.”³⁶⁾

임순철(2015)의 연구에서는 자서전이 상호작용 결핍을 겪는 노년의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의 표현방법임을 강조하고 자서전을 통해 주변의 인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자서전은 형상화의 산물로 기억 속 시간을 재형상화 하는 것이며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균열된 정체성을 가진 노년세대가 자서전 쓰기를 통해 과거의 자기를 현재화하여 정체성을 회복하였다. 회복된 정체성은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했으며, 노년세대는 이를 자신이 다시 인정받게 된 것으로 이해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정체성은 죽음 이후에도 자서전 속에 남아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기억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³⁷⁾

34) 생애사(Biography)란 개인적 서술로서 구술자의 개인적 경험과 자신과 타자들에 대한 관계를 주제로 하는 자기성찰적인 1인칭 서술을 말한다. 생애사는 인간이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이다.

35) 지행중(2011), 「자서전에 나타난 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참고, 학습자의 삶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전기적 능력’ 또는 ‘생애사적 역량’이라고 한다. 생애사적 지식과 능력은 학습자들이 자신의 생애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점을 가지며 바라볼 수 있는 입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며 학습자들의 과거의 경험과 생애사를 현재적 학습의 관점에서 활발하게 촉진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다.

36) 정승일(2012),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희(2016)는 자서전 쓰기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고유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 구성된 삶을 성찰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내러티브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인들이 자서전 쓰기 과정에서 생애사적인 이야기를 통해 자신과 타자를 관련짓고, 자신의 경험을 조직화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야기를 만드는 내러티브 과정 속에서 자기성장, 자기교육 같은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노년기를 살아가는 생산적 지식으로 재구성되어 성공적 노화를 이끌어 주는 ‘생애사적 역량’이 된다.”³⁸⁾

앞서 소개한 연구 결과를 <표 3>에서 정리했다. 자서전 쓰기가 노년 세대에 주는 의미는 우선, 인생의 의미를 재발견하여 자아통합을 이룬다. 다음으로, 인정을 회복하여 외부와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마침내 생애사적 역량을 개발하여 노년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써 자서전 쓰기가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뉴실버세대의 자아통합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표 3> 자서전 쓰기의 의미

자아통합	외부와의 소통	생애사적 역량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의 의미 재발견 • 내적 체험 경험 • 과거의 자아를 현재화 → 정체성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정을 받기 위한 욕구의 표현방법 → 인정 회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성장, 자기교육 같은 체험 → 노년 문제 해결

37) 임순철(2015),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자서전 쓰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38) 박성희(2016), 「노인 자서전쓰기에 나타난 생애사학습의 의의」,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181-204쪽

2. 자서전 쓰기와 내러티브

자서전 글쓰기를 통해 자아통합을 이룰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회복된 정체성은 외부와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생애사적 역량을 계발하여 노년 문제의 해결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본고에서는 자아통합의 수단인 인생회고와 자서전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지 알아본다.

1) 자서전의 특성

먼저 자서전의 특성을 르죈(Lejeune, 1998)이 제시한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그는 자서전이 다루는 주제, 언어적 서술 형식, 작가와 화자의 상황을 기준으로 자서전의 특성을 설명했다³⁹⁾.

<표 4> 르죈의 자서전 규약⁴⁰⁾

카테고리	요소	
1. 다루는 주제	a. 개인적인 삶	b. 인성의 역사
2. 언어적 형식	a. 이야기	b. 산문
3. 작가의 상황	작가와 화자가 동일	
4. 화자의 위치	a. 화자와 주인공이 동일	b. 회상적인 내레이션

첫째, 자서전은 개인적인 삶이나 인성의 역사를 주제로 다룬다. 자서전의 주제는 저자 자신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집필의 시점까지 통시적으로 다룬다.

둘째, 자서전의 서술 형태를 보면 이야기와 산문이다. 이야기(narrative)라 함은 자서전이 단순히 저자가 경험한 사건들을 단순하게 모아놓은 기록 이상의 것으로서 사건과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주된 플롯을 의미한다. 즉 저자가 살아온 특정한 공간과 시간, 시대를 배경으로 나와 주변인물들이 등장하며 시간의 축을 따라 사건이 전개된다. 그 안에는 다양한 갈등양상과 해결의 과정이

39) 필립 르죈(Philippe Lejeune), 윤집 옮김(1998),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17쪽 내용 정리

40) www.scribd.com/document/221471187/Philippe-Lejeune-the-Autobiographical-Contract
원문을 번역하여 표로 정리

그러진다. 그런 면에서 자서전은 한 편의 이야기인 것이다.

셋째, 작가(저자)와 화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서전은 ‘저자=화자=주인공’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저자와 화자가 동일인물인 동시에, 화자와 이야기 주인공이 동일 인물임을 전제로 한다. 이는 자서전 소설에서 제 3자가 관찰하듯 서술하거나 자신을 주인공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자서전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마지막으로, 자서전 이야기는 과거형, 회상으로 진행된다. 류한조(2019)는 자서전의 특성 중 인성의 역사를 회상체로 기술하는 것은 현재 완성된 인성이 기준이 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것이라며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인성의 역사는 인성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평가로 이루어진 변화과정이며 개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주관적 측면에서도 저자가 스스로의 변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계기로 스스로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표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리하면, 자서전은 저자가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인성의 변화 과정을 담은 회상체의 생애 이야기여야 한다.”⁴¹⁾

최근 들어 자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문학 장르로 확립⁴²⁾되면서 형식을 제한하는 접근 방식을 탈피하고 있다. 자서전의 형식과 내용이 일정한 범위로 규정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해지면서 자서전을 쓰는 목적이 개인의 체험을 통한 삶의 해석이란 부분은 더 확실한 자서전을 규정하는 특성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선 본고에서 다루는 자서전은 언어적 형식면에서 볼 때 ‘사건과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주된 플롯을 가진 이야기’ 형태이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자서전의 특성을 이야기의 다른 용어인 ‘내러티브(narrative)⁴³⁾’에 관한 최근의 논의를 좀 더 살펴본다.

41) 류한조(2019),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노인의 자서전-쓰기 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26쪽 참고. 자서전은 회상으로 인출된 기억을 스스로 선택하고 조합하는 방식으로 구성되므로 화자의 입장이 전달되는 회상체를 사용하게 된다.

42) ‘자서전’이란 용어가 문학에서 맨 처음 사용된 것은 1809년 영국작가 로버트(Robert Southey)에 의해서였다. 낭만주의 문학의 특성이 되었던 기원과 아동송배의 강조는 작가들로 그들의 삶의 시초부터 서술하여 아동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한편 일기와 편지, 고백론, 종교적 체험기 등의 다양한 형태로 자기표현이 촉진되었다. 최경도(2008), 「자서전 연구의 성격과 전망」, 영미문학교육, 제12집, 제1호, 132쪽

43) 내러티브는 서사체, 이야기, 이야기하기, 담화 등 다양한 의미로 쓰이나 본고에서도 원어의 의미를 살려 용어를 그대로 사용코자 한다.

2) 내러티브의 개념과 자서전 쓰기

내러티브에 관한 정의는 다양하다. 최근 내러티브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이야기라는 결과물로만 보는 관점에서 사고양식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브루너(Bruner, 1986)가 인간사고 양식⁴⁴⁾의 하나로 내러티브 사고를 소개한 뒤 내러티브는 인간이 경험을 조직화하고 이해하며 지식을 구성하는 주요 사고 양식이자, 지식과 실재, 의식, 정체성을 구성하는 주요 수단이라는 점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랑킨(Rankin, 2002)이 내린 내러티브의 정의에도 브루너와 같은 의미로 사고양상으로서의 내러티브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내러티브를 아래와 같이 정의했다.

“내러티브는 이야기 혹은 결과물, 사고양상 및 커뮤니케이션이 하나로 어우러진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각각으로는 내러티브의 개념을 설명할 수 없으며 이 3가지를 종합하여 하나의 활동과 시간적인 과정으로 봐야 한다.”⁴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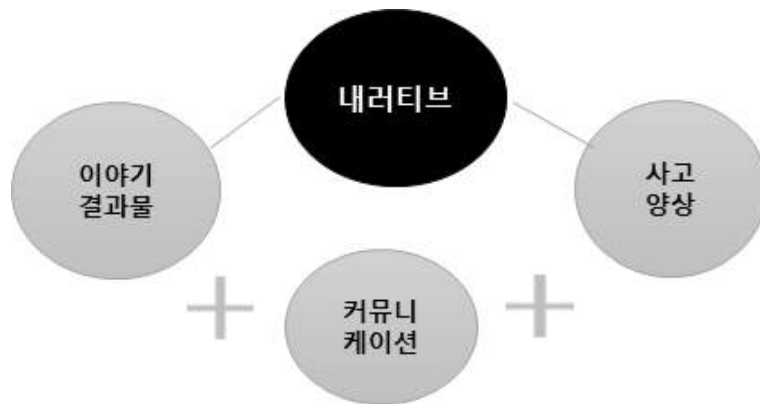
박민정(2006)도 위와 동일한 관점에서 내러티브의 세 가지 개념이 구분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림 2>는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이야기 혹은 결과물, 사고양상 및 커뮤니케이션] 세 가지 틀이 내러티브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다기보다 각기 강조점을 달리하여 내러티브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내러티브 사고양상을 통해 이야기가 구성되며, 이 이야기를 매개로 저자, 이야기, 청중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⁴⁶⁾

44) Jerome Bruner(1986),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The Jerusalem-Harvard Lectures World, pp.11-14. 브루너는 인간의 사고를 두 가지 형태, 패러다임 사고(paradigmatic mode of thought)와 내러티브 사고(narrative mode of thought)로 구분지었다. 패러다임 사고는 과학적, 논리적, 수학적 사고로 일반적으로 인과 관계를 다루는 데 논리적 증명이나 가설을 검증한다. 내러티브 사고는 경험을 조직화하고 경험을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사고이다.

45) Rankin, J.(2002), 「What is Narrative?: Ricoeur, Bakhtin, and Process Approaches, Concrecen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Process Thought, vol.3, pp.2-5 “Narrative as a story or product, Narrative as a mode of consciousness, Narrative as a communication”를 번역

46)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제4호, 27-47쪽



<그림 2> 내러티브의 세 가지 개념⁴⁷⁾

다음으로 내러티브의 3가지 개념을 자서전 쓰기에 적용하여 시사하는 바를 살펴본다. 첫 번째 개념을 적용하여 자서전은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야기 또는 결과물’이라고 정의하면 자서전 쓰기는 시간의 순서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서사가 아니라 자서전은 개별적 사건들이 플롯을 중심으로 구조화되어야 한다. 박용익(2006)은 “자전적 이야기는 플롯구성을 통해 서로 관련 없는 사건의 연쇄들이 의미 있고 결속성을 갖는 이야기 줄거리로 구성된다.”라며 플롯 구성이 자전적 이야기를 구성하는 자질과 인식 지표 중의 하나로서 보았다⁴⁸⁾.

또한 자서전 쓰기는 두 번째 개념인 사고양상으로서의 내러티브 개념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내러티브를 구성한다는 것은 사건에 대한 정보를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적으로 경험을 성찰하는 과정에서 통일성 있는 의미를 찾아내고, 플롯 중심의 내적 구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박민정은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삶은 예측불가능하고, 불연속적이며, 파편적인 경험의 조각으로 이루어 졌는데, 내러티브의 플롯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경험으로 유기적인 관련성을 갖게 되고 전체적인 이야기의 맥락에 비추어 의미를 갖게 된다. 즉 내러티브는 일관성이나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과거의 사건들, 인물들, 행위들, 상황들을 서로 관련짓고, 조직화하고, 구조화하면서 질서와 형상을 부여하는 사고양상이다.”⁴⁹⁾

47) Rankin이 정의내린 내러티브의 개념은 3가지 틀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48) 박용익(2006),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 언어학, 제20호, 141-161쪽

49) 박민정(2006), 앞과 동일 논문, 37쪽

세 번째 개념인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내러티브를 자서전 쓰기에 적용해 보면 자서전 쓰기가 상호작용의 욕구를 가진 노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도구가 됨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이는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그룹 내 상호작용, 자신 내면의 상호작용(자아성찰), 세대 간 상호작용이 함께 일어남을 보여 준다⁵⁰⁾.

정리하면, 자서전 쓰기 행위는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과거 사건들을 연결 짓는 스토리를 구성함으로써 사건들을 일관성 있게 종합하는 인식구도이자, 과거의 사건들을 특정한 형태로 구조화하고 관련지으면서 서로 이질적으로 보이는 사건들을 나름대로 종합하여 현실을 이해하려는 사고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자서전 쓰기 과정은 인생회고가 요구하는 통일성 있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과 일치한다. 내면의 상호작용 경험이 이뤄진 결과 자아통합과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세대 간 커뮤니케이션을 일으키며 뉴실버세대가 가진 상호작용의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런 자서전 쓰기는 별도의 교육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에게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줄거리, 플롯 구성으로 만드는 것은 글쓰기 전략과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⁵¹⁾.

3. 디지털 내러티브와 디지털 자서전

최근 들어 디지털 내러티브 기반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가 활성화되는 양상이 단순히 글쓰기가 쉽도록 도와준 디지털 기술의 환경적 원인 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내러티브 관점에서 자서전 쓰기를 살펴본다. 본고에서는 디지털 내러티브의 특성을 기존의 내러티브와 비교해 보았다.

50) 한정란, 조해경, 이이정(2004), 『노인 자서전 쓰기』, 학지사

51) 이동성, 김영천(2014),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77-103쪽

1) 디지털 내러티브의 특성

디지털 내러티브는 첫째, 개인들의 일상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구성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삶에 대한 능동적인 해석으로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이 삶을 이야기하고 공감하는 트렌드와도 연결된다. 원철(2013)⁵²⁾에 의하면 이야기를 구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다. 기존 내러티브가 중심적 저자, 선형성⁵³⁾, 종결 등을 지향하는 것에 비해 디지털 내러티브는 탈중심화⁵⁴⁾, 네트워크, 연결, 다선형성, 미시서사를 기본 특성으로 한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방식의 서사가 영웅의 모험담 같은 신화적 내용이나 미스터리를 제시하고 청중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 비해서 디지털 내러티브를 이용한 서사는 자신의 삶의 사소한 것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방식으로 공감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⁵⁵⁾.

둘째, 기존의 내러티브가 문자적인 서술 방식인 것에 비해 디지털 내러티브는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려 놓았다. 구술이 문자로 정착되면서 말하는 사람의 분위기, 기분, 신분, 표정 등에 대한 표현은 배제됐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공간에는 영상과 말과 음악을 아우르는 콘텐츠가 무수히 등장하고 있다. 일종의 ‘신(新) 구어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⁵⁶⁾. 옹(Ong, 2002)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및 음성 녹음 장치 등은 이미 문자성이 내면화된 의식에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는 구술성이라 이를 ‘이차적 구술성(secondary orality)’이라 불렀다⁵⁷⁾.

52) 원철(2013), 「차이와 생성으로서의 디지털 서사: 공감각적 내재성」, 인문연구, 제69호, 525-550 쪽, 본래 디지털 서사, 스토리텔링의 특성을 위해 설명한 것을 본고에서는 디지털 내러티브로 용어를 바꿔 설명했다.

53) 선형성(線型性, linearity)은, 직선처럼 똑바른 도형, 또는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갖는 대상이라는 뜻으로, 이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 변환 등에 대하여 쓰는 용어이다.(위키백과 참고)

54) 탈중심화는 웹콘텐츠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작은 사이트들의 집단적 힘을 구성하는 점을 설명하는 것으로, 미시서사들의 집단적 힘이 중심으로 수렴되기보다 주변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의미한다.

55) 원철(2013), 동일 논문, 527쪽,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관한 특성을 디지털 서사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내러티브와 함께 보았다.

56) 한기호(2013), 『기획회의 337호』 중 「스마트 시대의 글쓰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https://m.blog.naver.com/khhan21/110067118455>

57) 1) Robert A. Hall, Jr.(2015), 「Reviews: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By WALTER J. ONG」,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pp.625-630. 2) Walter J. Ong(200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Routledge. 옹은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다양한 음성 장치 등과 같은 전자 매체들의 소통방식은 사람들의 참여, 집단의 식, 그리고 현재를 중요시하며 사는 등 예전의 구술성과 놀랄 만큼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셋째, 디지털 내러티브는 다양한 표현이 가능하다. 개인적 이야기를 사진과 동영상, 음악, 목소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나타냄으로써 자기표현의 영역을 확대하고 문자로 서술할 때 배제했던 부분들을 다시 포함시키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기존의 예술이나 스토리의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수동적 소비자의 역할에 머물렀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도 창작과 표현의 기회를 확대, 제공해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내러티브의 본질인 상호작용성은 내러티브가 가진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개념을 확장하며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한다. 즉, 저자와 독자는 상호대면성과 쌍방향성이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

디지털 내러티브가 사이버 공간에 새로운 서사적 공간을 형성하면서 디지털 내러티브의 사용자들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일단 사용자간의 공감(이뤄지면⁵⁸⁾, 소통은 더욱 활발해져 독자는 언제든지 저자에게 댓글을 통해 질문을 던지거나 이야기를 덧붙이기도 한다⁵⁹⁾. 쌍방향 소통의 사용자 경험은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결과를 낳게 한다.

요컨대, 디지털 내러티브로 개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삶에 대한 반성과 성찰, 표현의 기회가 함께 확대되고, 이차적 구술성이 다양한 디지털 매체와 결합하여 개인의 표현, 참여, 소통, 연결의 가능성을 확대시킨다⁶⁰⁾.

2)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방식의 변화

디지털화로 인해 글쓰기 방식도 바뀌고 있다. 디지털 내러티브가 글쓰기에 수용되면서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방식을 벗어나 상호작용성을 지닌 디지털 내

58) 독자와 저자 내지 화자와 청자가 만나는 중요한 지점에서의 소통은 매우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다. 이야기는 말하는 자를 통해 듣는 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반응이라는 순환 고리를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 반응이 이루어지려면 이야기를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공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현대 디지털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디지털 내러티브는 당대의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활발히 소통되고 있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서 공감의 지점이 어디인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사회적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9) 오늘날의 스마트폰은 스마트폰을 손에서 떼어 놓지 않은 채 일상을 보내는 네티즌들에게 책이나 신문 못지않게 자주 접하는 일상적 소통의 매체이다. 디지털 기술의 특정한 매체적 속성이 반영됨으로써 이야기 형식은 물론 이야기 수용 양식의 변화까지 수반하고 있다.

60) 원철(2013), 앞과 동일 논문, 534쪽

러티브 방식을 이용한 글쓰기가 가능해졌다⁶¹⁾. 시공간 제약을 넘어 플랫폼이나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댓글을 달고 함께 글을 쓸 수 있다. 그 영향으로 웹사이트나 모바일 자서전 쓰기 플랫폼에서 타인과 함께 글을 쓰는 것이 가능해졌다⁶²⁾.

디지털 글쓰기 방식에 영향을 준 것은 글쓰기 과정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이 적용되면서 1990년대 이후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도구라는 산물이 나타난 이후이다. 디지털 창작 도구는 크게 스토리 창작 지원 도구와 스토리 자동 생성 도구로 나뉜다. 스토리 자동생성도구는 기존의 이야기들을 프로그래밍 함수로 된 스토리 문법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 또는 텍스트 단위의 이야기를 생성한다.

<표 5> 디지털 스토리텔링 창작 도구⁶³⁾

종류	스토리 창작 지원 도구	스토리 자동 생성 도구
학문적 기반	고전주의 서사학 이론	인지 과학, 인공지능 컴퓨터 공학
기능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롯을 체계화 • 데이터 검색 수집 • 씬(Scene)별 자동정렬 • 질의응답을 통한 스토리 추천 • 장르에 맞는 템플릿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값을 입력 • 스토리 문법 적용 • 자연어 처리 기술 • 스토리 자동 생성
대표 사례	Dramatica Pro, Final Draft, Story Craft, Plots Unlimited, StoryBuilder, Power Structure	Joseph, MINSTREL, ProtoPropp, Tale-Spin, Universe, Storytron, MEXICA

디지털 자서전 쓰기에 스토리 자동 생성이 적용된 예가 있다. 해외 온라인 자서전 쓰기 플랫폼인 The Life Writer 웹사이트⁶⁴⁾에서는 Biography Book Writing Software을 이용하여 질문에 음성으로 대답하면 먼저 자동으로 텍스트로 변환시킨다. 그런 다음 자동으로 모든 콘텐츠를 서사 구조화된 장별로 나뉘고 회고록을 만들어 준다. 이 프로그램은 자기 출판(self-publishing)⁶⁵⁾을 원하는

61) 전경란(2003), 「디지털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충돌과 타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62) 해외 사례 The Life Writer의 Biography Book Writing Software도 유사한 방법이다.
 63) 이인화(2014),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120-125쪽
 64) www.thelifewriter.com 요약 정리
 65) 자기 출판이란 원고 집필부터 시작해서 편집·인쇄·배분까지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하여 자기 자

작가를 위한 글쓰기 소프트웨어⁶⁶⁾를 이용하여 자서전 서사의 특성을 추가, 변형한 것이다. 영국의 Autodotbiography 웹사이트도 온라인 상태에서 질문에 대한 답을 채우다보면 자서전이 만들어진다⁶⁷⁾.

다음으로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방식은 전통적 자료를 이용하여 글을 쓰던 방식에서 온라인 자료를 이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결과물인 모바일로 찍은 사진과 SNS에서 주고받은 데이터, 디지털 저장소에 남겨진 위치와 시간 정보, 영상 및 음성 기록 등은 오래된 기억의 회상을 돕는 실제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서전 작업에 필요한 재료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개인 일상 정보를 수집, 저장을 위해서 디지털 글쓰기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알고리즘이 적용된 디지털 기록인 라이프로그(lifelog)가 등장했다⁶⁸⁾. 라이프로그는 개인의 생활이나 일상을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디지털 공간에 기록하는 모든 일을 의미한다.

김주환(2015)은 글쓰기의 관행이 선형적인 글쓰기에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 구조화 글쓰기로 바뀐 것에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⁶⁹⁾.

“글쓰기의 자료적인 측면에서 정보들은 모듈화되었고, 접근성과 편집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글쓰기의 관행은 선형적인 글쓰기에서 자료들을 재조합하는 구조화 글쓰기로 바뀌었다(Remix Culture).”

그러나 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글쓰기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글쓰기 도구는 여전히 선형적인 글쓰기를 지원하는 편집 도구임에 착안하여 디지털미디어의 환경에서 벌어지는 재조합의 글쓰기라는 현상적 특성에 아날로그적인 글쓰기의 인지 과정을 접목하여 글쓰기 도구 디자인을 제안하였다. 이로 인해 디지털

신의 책을 출판하는 일.(네이버 사전)

66) <https://self-publishingschool.com/book-writing-software-bes>

67) www.autodotbiography.com/about, youtu.be/7iJYHHNJsak 참고

68) 라이프(life·삶)와 로그(logg·일지, 기록)의 합성어이다. 라이프로그(lifelog)란 넓은 의미에서 ‘개인의 전반적인 일상생활의 기록이나 정보’를 의미하지만,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의 기록을 획득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를 착용하는 것을 말한다.

<http://blockchainai.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8&nMcate=M1001&nIdx=29642&cpage=22&nType=1> 참고

69) 김주환(2015), 「재조합의 글쓰기에서 구조적인 글쓰기: 글쓰기 인지절차의 계획단계를 보조하여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글쓰기 방법과 도구의 제언」, 서울대학교.

화된 글쓰기에서는 글감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능과 글의 구조를 만드는 기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글쓰기 방식에 사용하는 코드 측면에서도 큰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글쓰기 방식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알파벳 코드에서 형상이나 음향코드를 이용하는 추상적인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플루서(Flusser, 2000)에 따르면, 비언어적인 형상이나 음향을 생산하는 디지털 시대의 글쓰기로의 변화와 욕구는 자연스러운 시대 흐름이 되리라 예견했다. 그는 알파벳 문자가 디지털 코드⁷⁰⁾에 밀려나는 현상을 보고 디지털 코드는 몇 십 년 내 새로운 계몽에 성공하리라 예견했다.

디지털 코드란 사진, 영화, TV, 비디오, 컴퓨터, 애니메이션 등과 같이 문자 텍스트의 개념을 기반으로 설계된 초언어적 코드이다. 비언어적 매체인 형상(그림)코드와 음향 코드를 이용한 추상화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⁷¹⁾.



<그림 3> 디지털화로 변화된 글쓰기 방식⁷²⁾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기존의 글쓰기와 비교하면 자료로 쓰일 정보들을 모듈화하고, 접근성과 편집의 용이성을 향상시켰으나 여전히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써 보는 글쓰기 전략이 꼭 필요하다.

70) 코드란 상징들의 체계이며, 상징이란 인간의 근원에서 인간과 세계 간의 심연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도구이다. 코드에는 점, 선, 평면, 입체, 공간, 시간 등이 있다.

71) www.flusserstudies.net/tags/digital-shift: 플루서는 인간 문명이 시작된 이후로 두 가지 근본적인 전환점이 있다는 가설을 주장했다. 첫 번째는 선형적 글쓰기(linear writing)이고, 두 번째는 기술적 이미지(technical image)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이 시대는 형상[그림] 코드와 음향 코드를 이용한 추상화와 영상코드로 빠른 시간 내에 기존의 알파벳 코드를 대체하는 digital shift의 혁명을 맞게 될 것이다.

72) 김주환(2015), 동일 논문 8쪽 그림을 참고하여 변형

디지털 글쓰기 환경의 변화로 주의할 점도 있다. 디지털 글쓰기에서 사용 및 수정의 용이함이 오히려 취약점이 될 수도 있다⁷³⁾.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상호작용성은 독자를 수용자에 그치지 않고 제공자가 되어 그 내용 자체를 조작, 변경할 수 있게 한다. 즉, 저자가 만든 디지털 내러티브를 독자들이 자유롭게 옮기고, 배치, 쓰기, 덧붙이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⁷⁴⁾. 실제로 유튜브와 같은 공유 플랫폼에서는 저자도 모르게 내용이 무단 사용되거나 삭제 또는 복제되는 경우가 있다.

3) 디지털 자서전의 서술적 자아

디지털 글쓰기 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서술적 자아를 등장시켰다. 서술적 자아의 중요성은 자서전의 개념을 소개할 때도 언급된 것이다. 로권의 자서전 규약에서 자서전은 ‘저자=화자=주인공’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⁷⁵⁾. 박용익(2006)은 자서전 이야기의 구성적 자질 중 하나로 ‘관점과 평가, 그리고 감정’ 및 ‘화자의 이중 시점’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관점과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사건은 특정한 관점 하에서 이야기되고, 이 관점 속에 사건에 대한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나타난다. 이야기 과정에서 단순히 사건의 개요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화자의 입장도 말해준다. 화자는 이야기 속에 자신의 정서적 경험과 감정적 평가를 써 넣는 것이다. 그래서 개인적인 경험의 이야기는 언제나 이야기의 묘사를 넘어서 평가적인 요소 또는 감정이나 욕구, 동기 등을 전달하는 ‘다중가치’를 갖는다.”⁷⁶⁾

73) Ümit Kennedy(2017), 「The Vulnerability of Contemporary Digital Autobiography」, ABA Graduate Student and New Scholars Network: What's Next?, pp.409-411

74) 전경란(2003), 「디지털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충돌과 타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디지털 텍스트는 전통적인 텍스트와 달리 배치, 쓰기, 항해 등의 역할을 수용자 내지 독자에게 부여한다. 즉 디지털 내러티브의 텍스트에서 독자들이 자신만의 행로를 따라 옮겨 다니고, 텍스트를 배치하고, 덧붙이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디지털 매체의 특성 때문이다. 디지털 내러티브는 단순히 디지털 정보로 변환된 이야기물이 아니라 하이퍼텍스트 소설이나 인터랙티브 영화와 같이 독자가 내용 자체를 조작하거나 변형시킬 수 있는 이야기물을 포함한다.

75) www.scribd.com/document/221471187/Philippe-Lejeune-the-Autobiographical-Contract

76) 박용익(2006),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 언어학, 제20호, 148쪽

다음은 ‘화자의 이중 시점에 대한 설명이다.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체험하던 순간과 다른 인식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화자는 이야기가 어떻게 종료되는지를 알고 있는 데, 그것은 행위자로서 사건의 진행되는 순간에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순간에 그가 무엇을 생각했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즉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를 회상하기도 한다.”⁷⁷⁾

정리하면, 자전적 이야기는 본래 체험했던 사건과는 근본적인 거리가 존재하는 기대와 경험, 욕구를 바탕으로 세상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모방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이다. 이는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할 때, 체험하던 순간의 과거 자아와 다른 현재의 자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두 자아가 만나 내면화되고 진화하는 개인의 삶의 이야기와 함께 서술적 자아가 형성된다⁷⁸⁾. 이런 서술적 자아는 재구성된 과거와 상상하는 미래를 통합하여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의 일관성과 목적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과 웰빙, 성숙을 제공하여 보다 높은 수준의 삶을 향유케한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서술적 자아(narrative identity)⁷⁹⁾가 가진 특성에 대한 논의는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와도 관련이 있다. 슈단첼(Stanzel, 1990)은 1인칭 서술자가 이야기 중심을 이루는 준 자서전적 일인칭 소설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서술적 자아가 ‘체험적 자아’와 일치하는 경우를 설명했다. 이 경우 ‘나’라는 자아가 후회, 개심 또는 통찰을 통하여 일종의 변화를 거친 후 자신의 경험과 인생을 이야기하게 된다.

‘체험적 자아’는 주인공 여부와 상관없이 소설 안에서 일어나는 시간 중에 있는 즉, 사건에 관련된 존재이고, ‘서술적 자아’는 사건이 다 끝난 뒤에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존재이다. 글쓰기 순간에 체험적 자아와 서술적 자아는 분리될 수 있으므로 대상화시

77) 박용익(2006), 동일 논문 149쪽 인용

78) Dan P. McAdams and Kate C. McLean(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22, pp.233-238, 서술적 자아, 또는 서술적 정체성이라고 한다.

79) 프란츠 슈단첼(Franz K. Stanzel), 안삼환역(1990),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61-63쪽

킬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페이스북 타임라인(Timeline)의 서술적 자아는 본인인 ‘체험적 자아’와 일치하지 않으므로⁸⁰⁾ 본고에서 논하는 디지털 자서전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는다.

페이스북 이용자들의 자아에 관한 연구 중 자기 과시의 욕망을 위해 형성되었다는 논의도 있다. 이호규(2011)는 페이스북에서의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자신들이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과 각자의 일상생활, 나아가 믿음, 가치관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특징과 함께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잘 보이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특성이 있다고 관찰했다⁸¹⁾.

김유정(2015)도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기과시를 위해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⁸²⁾. 자서전은 서술적 자아가 체험적 자아의 삶에 고차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욕망과 과시를 위해 형성된 서사로는 자서전을 구성할 수가 없다.

이상으로 디지털 내러티브를 통해 일어난 글쓰기 환경의 변화로 자서전 쓰기의 의미가 어떻게 확장 변화되는 지 살펴보았다. 단, 플랫폼을 위한 글쓰기 전략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으며 특히 내면 자아의 소통으로 자아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점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자서전 쓰기로는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서전으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80) How Facebook Can Amplify Low Self-Esteem, Narcissism And Anxiety(2014), <https://raywilliams.ca/how-facebook-can-amplify-low-self-esteem-narcissism-and-anxiety/>

81) 이호규(2011), 「페이스북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시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144쪽

82) 김유정(2015),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4호, 505쪽

III.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고려사항

관련 연구에 대한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자서전의 글쓰기 주체인 뉴실버세대는 독특한 디지털 향유 방식의 미디어 욕구를 보이며, 사회참여, 여가활동, 자기표현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세 가지 목적을 정리하면, 첫 번째 목적은 자아통합이다. 버틀러(Butler)는 인생회고를 통해 자아통합을 성취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선행연구를 통해 자서전 쓰기를 통하여 동일한 경험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목적은 사회참여의 욕구 충족이다.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내러티브를 통해 구성된다. 디지털 내러티브의 본질인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뉴실버세대의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세 번째 목적은 자기표현을 위해서이다. 디지털 자서전은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려 놓고, 예술 매체를 통해 다양한 자기표현이 가능하다. 이는 뉴실버세대의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디지털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자서전 글쓰기는 사건과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주된 플롯을 가진 이야기이며,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해야 한다. 이 과정 중 과거 사건을 체험하던 순간의 과거 자아와 사건을 겪은 현재 자아가 만나 사건을 재구성하며 미래의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방식에도 변화가 있다. 디지털 매체의 발전으로 글쓰기의 접근성이 향상되고 편집이 쉬워졌다. 또한 전통적 자료에서 온라인 자료를 사용하고, 선형적 글쓰기에서 재조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글쓰기로 바뀌었다. 텍스트 형태의 알파벳 코드 대신에 형상이나 음향 코드를 이용한 글쓰기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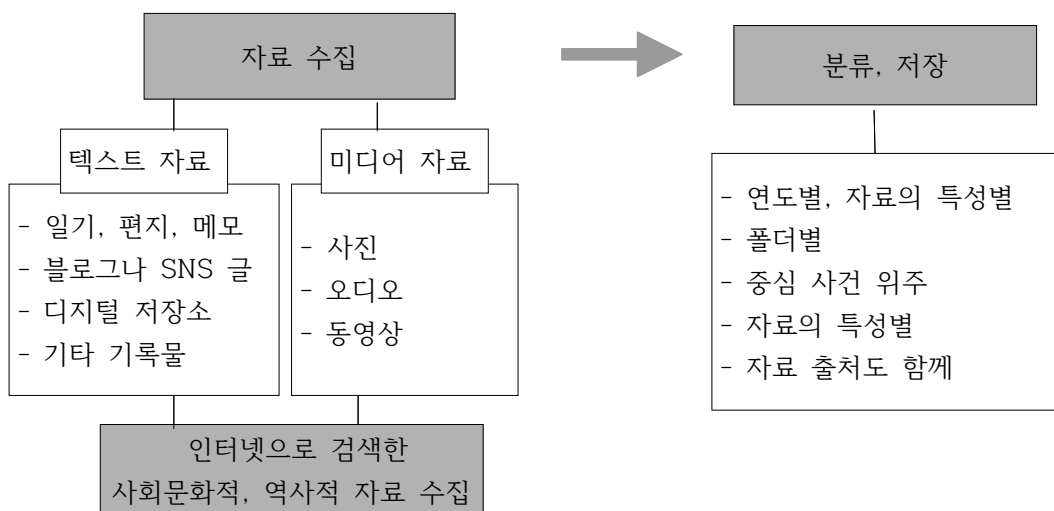
디지털 자서전의 주제, 목적, 글쓰기의 특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서전을 쓸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다음 4가지로 제안한다.

1. 과거 갈등을 주제로 한 인생회고

자아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자서전은 삶의 시작부터 현재까지 순차적으로 돌아보면 인생전체를 회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시작하면서 먼저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둔 순간과 인물 또는 현재까지 미해결된 갈등을 떠올려 보는 것이 필요하다. 즉, 평소에 가슴속에 묻어두었거나 일부러 꺼내지 않고, 과거의 자아가 겪었던 이야기들을 꺼내어 현재의 자아의 관점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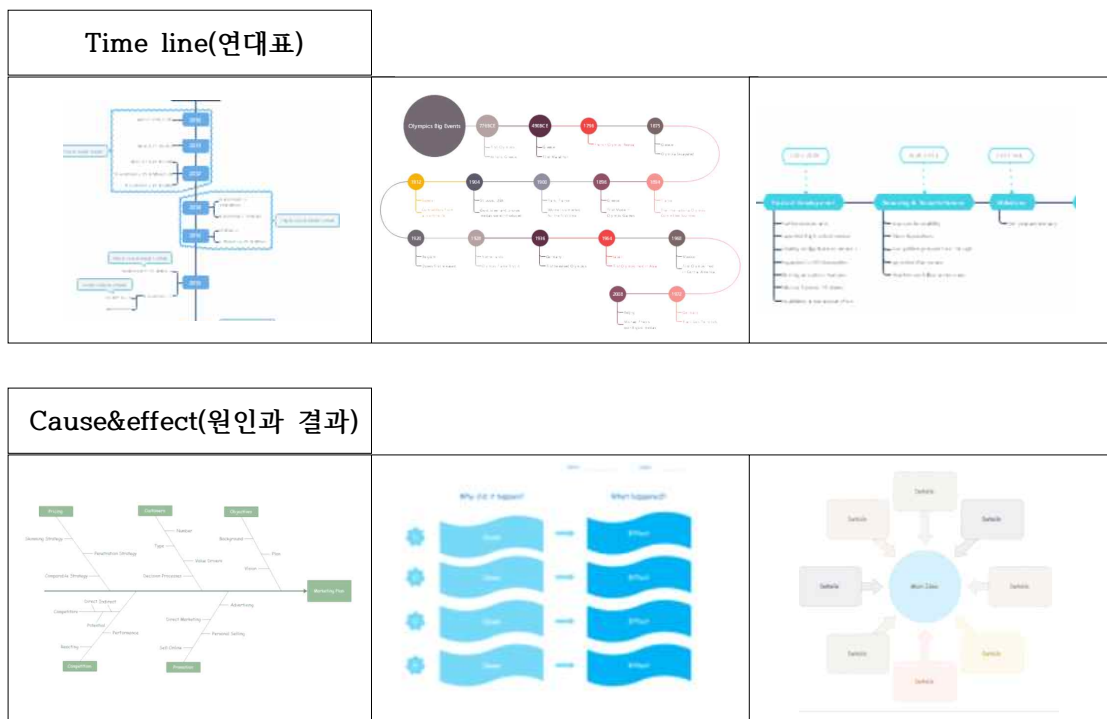
그러나 노년세대에게 잃어버린 긴 시간을 기억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통 특정 사건은 상세히 기억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은 대략적인 줄거리나 잘못된 기억을 하게 된다. 이 때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나 클라우드와 같은 디지털 저장소에 남겨진 디지털 자료는 언제 어디서든 양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과거의 생각과 기억을 되살릴 수 있다.

인생회고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수집된 자료를 어떻게 분류, 배치, 정리할지 정한 뒤 저장의 방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사가 담긴 문서, 소리[오디오], 이미지[사진], 영상[비디오]과 같은 아날로그 콘텐츠의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자료 수집이 끝나면 <그림 4>와 같이 수집된 자료를 분류하여 개인 데이터 저장소에 폴더별로 저장한다.



<그림 4> 디지털 자료의 수집과 분류, 저장

자서전 구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성하는 연대기적 구성 방식과 주제별 구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대기적 구성은 태어날 때부터 고향, 가족, 유년 시절,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노년과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서술한다. 주제별 구성은 인생에서 특별히 중요한 일이 있었던 시기나 사건에 집중하여 의미를 서술하는 방식이다. 그 시기와 사건 앞뒤로 있었던 사건 상황의 상호 연관성을 살펴보고 자신의 인생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몇 가지 주제를 잡아 볼 수 있다. 각 시기별로 삶의 기억을 되살리는 질문⁸³⁾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그림 5>에 제시된 그래픽 오거나이저를 함께 활용하여 주요한 사건을 시간별로 정리하거나 과거 사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여 사건을 재구성, 분석,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림 5> 그래픽 오거나이저(Graphic Organizer)⁸⁴⁾

83) 2007년부터 시작된 회고록 제작 서비스인 The Life Writer는 먼저 인생사에 관련된 수백 개의 질문에 음성으로 대답한 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글쓰기 과정을 쉽도록 도와준다. 201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삼성카드에서 제시하는 ‘인생樂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저장하는 방식은 온라인 자서전 서비스와 같이 인생의 단계마다 기억을 인출할 수 있는 질문을 제시하여 답변을 유도하는 형태이다.

84) <https://www.edrawsoft.com/share-graphic-organizer.php>

자서전을 구성하기 위한 질문의 대답을 하거나 시간이나 주제별로 자료를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생회고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생회고는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갈등과 대인 관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마음속도 들여다보는 발달과정이다. 현재의 자아가 한 발짝 떨어져서 과거의 부정적인 기억을 재조정하고, 내면의 대화를 통하여 과거의 자아와 화해하고 수용하며 삶의 통일성과 방향을 갖게 되면 자아통합을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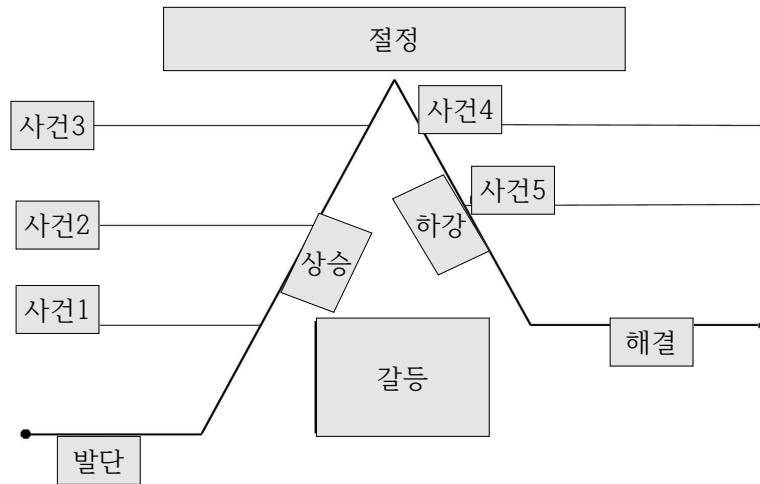
2. 플롯 중심의 내적 구조 구성

디지털 자서전은 자신의 인생을 소재로 한 플롯⁸⁵⁾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억의 양만으로도나 사건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⁸⁶⁾하는 것만으로 인생회고는 완성될 수 없다. 이 때 플롯을 구성하는 주체인 서술적 자아(주인공)과 화자가 일치하며 본인이어야 한다. 즉, 기억에 대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평가에 따라 회상된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사고과정으로 연결될 때 자아통합을 이루는 진정한 인생회고를 경험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플롯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작가는 자신의 의도와 목표를 드러내기 위해 플롯을 구성한다. 플롯은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분류를 넘어 주제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 요소들의 논리적인 배치이며 계열화 작업이다. 플롯을 통해 사건들은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하나의 완결된 구조를 이루게 된다. 즉, 자서전의 플롯을 구성하면서 저자는 인생의 동기와 의도, 목표를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보였던 사건이나 관계를 서로 연결하고 계열화하여 이야기를 만들게 된다. <그림 6>처럼 플롯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면 단계적으로 플롯을 구성할 수 있다.

85) 플롯(Plot)은 소설에서 인물, 주제, 배경, 문체 등과 함께 이야기를 구성하는 기본 요소이다.

86) E.M Forster(1927), 『Aspects of the Novel(소설의 양상)』에서 스토리(story)가 시간의 연결에 따라 정리된 사건의 서술이고 플롯(Plot)은 인과 관계에 중점을 둔 사건의 서술이라 정의했다.
www.storyinsight.com/techniques/media/forster.htm



<그림 6> 플롯 다이어그램(Plot Diagram)⁸⁷⁾

플롯을 만들기 위해 이야기의 통일성을 형성하는 것은 뭔가를 기억해내는 행위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기억을 할 때는 경험의 전후에 일어난 일들이 빛어낸 의미가 삽입되고 기억 속 시간과 사건을 재구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서로 관련 없는 사건들이 새로운 의미와 결속한다. 자연스럽게 자신에게 의미 있고 중요했던 경험과 자신의 세계관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자신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화를 체험했는지, 그때 가졌던 정서적 경험과 감정적 평가나 욕구, 동기 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그 결과 과거에 체험했던 순간과는 다른 각도에서 자신의 지나온 인생과 주변 관계를 보면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할 것이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화자가 되고 보면 가치관은 더 분명해지고 일관성 있는 서술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디지털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는 인생 전체를 재구성하여,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진 하나의 이야기 줄거리로 만들어 가는 플롯을 이용한 글쓰기 전략과 단계가 포함되어야 한다. 실제로 자서전을 쓸 때 주제를 여러 개로 하여 한 개 이상의 플롯이 나올 수도 있다.

87) <http://paigehohlt.me/print/best-revered-printable-plot-diagram/>

3.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자기표현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기술을 매체 환경 또는 표현 수단으로 사용하여 뉴실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디지털 자서전은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개인사가 담긴 문서, 오디오, 사진, 비디오와 같은 아날로그 콘텐츠의 기록물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저장한 뒤 이를 디지털 자서전의 재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노래 자서전, 사진 자서전, 만화 자서전, 그림 자서전, 오디오 자서전 등과 같이 매체를 선택하는 행위 자체가 자아의 관심사와 기호를 표현할 수 있다. 게다가 여러 가지 시·청각의 요소가 결합된 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삶을 공감각적으로, 독창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게 된다.



<그림 7> 디지털 자서전을 구성하는 매체

특히 본인의 음성을 이용한 자서전의 구술성(orality)은 화자의 언어 자체와 언어 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까지 전달한다. 즉, 화자의 계층, 성별, 세대, 지역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와 구술 상황에서 동반되는 제스처, 분위기, 기분, 음성의 고저와 떨림까지도 함께 전하며 입체적이고 구체적이며, 공감각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

디지털 자서전은 뉴실버세대가 가진 디지털 향유에 대한 욕구도 충족시킬 수 있다. 디지털 매체 환경 공간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면서 문화 향유 욕구를 적극적으로 발현할 기회를 얻게 된다. 이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사진, 음악, 비디오 영상, 음성 등의 여러 미디어 자료를 글쓰기 자료로 사용함으로써 텍스트로만 자서전을 쓰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

4. 다양한 소통의 목적 실현

디지털 자서전은 다양한 소통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우선,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통해 내면의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과거 경험의 기억을 통해, 죽음에 임박한 현재 자아는 해결되지 않은 사건과 감정을 가진 과거의 자아와 소통을 시작한다. 이 과정을 통해 사건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과거 자아와 화해하며 정체적이 회복된 새로운 자아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림 8> 디지털 자서전을 통한 소통

또한, 디지털 자서전은 외부와 소통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디지털 자서전의 공유는 저자와 독자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 타인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서로 공감하며 소통하고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킨다. 이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서전은 생생한 역사 현장의 기록이 될 수 있다. 이는 후

대에게 자기 경험을 전달하고 인정을 회복함으로 뉴실버세대가 가진 사회참여 욕구를 자연스럽게 충족시켜 줄 것이다.

요약하면,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 쓰기 과정은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인생전체를 회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자서전을 쓰기 전에 먼저 다뤄져야 하는 부분이다. 이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을 이룰 수 있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의 이야기는 자신 인생을 소재로 유기적이며 통일적인 하나의 완결된 내적 구조를 지닌 플롯구성이어야 한다. 이는 자서전 글쓰기의 전략으로 고려할 요소이다. 특히 글을 쓰는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할 때 자아통합을 경험할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매체 환경 또는 표현 수단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자아 표현과 디지털 향유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기억의 부담과 글쓰기의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자서전은 인생회고를 통해 내면의 자아와 소통함으로 정체성을 회복하여 자아통합을 이루고, 타인과 세대의 공감을 얻어 외부와 소통하며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뉴실버세대가 디지털 자서전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소통임을 보여준다.

IV. 디지털 자서전 쓰기 사례 분석과 제안

디지털 환경의 변화로 새로운 글쓰기 방식을 이용하여 디지털 기술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일생을 기록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노년층이 차츰 늘고 있다. 이들은 대학이나 도서관 혹은 노인 학습센터에서 제공하는 자서전 쓰기 강좌를 택하거나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자서전을 쓰고, 영상 제작 과정을 배워 비디오를 제작하기도 한다.

본 장에서는 국내외 사례 중 온라인에서 자서전 쓰기로 책을 완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 웹사이트와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교육 강좌로 나뉘서 총 6개의 사례를 살펴본다.

- 온라인 자서전 쓰기 플랫폼 사례 3가지
 - 해외 사례 <The Life Writer>, <Autodotbiography>
 - 국내 사례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 영상 자서전 제작 교육 강좌 사례 3가지
 - 해외 사례 <The Storycenter>
 - 국내 사례 <영상 자서전 제작>,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우선, 이 사례들이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서전으로서 적절한 지 평가했다. 앞 장에서 도출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삼아 2가지 세부 평가 항목으로 나누어 <표 6>처럼 디지털 자서전 쓰기 평가표로 만들었다. 평가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자아통합과 관련이 있는 인생회고가 이뤄지는 지 알아보기 위해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지,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다루는 지에 대해 평가했다. 자서전의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의 일치여부와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의 포함 여부를 평가했다. 디지털 내러티브와 관련한 질문으로는 디지털 매체 환경의 이용 여부와 표현 수단으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지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소통의 목적 실현 여부는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과 타인과의 소통 가능성 여부를 묻는 항목으로 평가했다.

<표 6> 디지털 자서전 쓰기 평가표

평가 기준	평가 항목
인생회고 과정 반영	1.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2.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하는가?
자서전의 구성 방식	3.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하는가?
	4.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디지털 내러티브 활용	5. 디지털 매체 환경을 이용하는가?
	6. 디지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가?
소통의 목적 실현	7.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이 이뤄지는가?
	8.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가?

다음 과정에서 평가 항목에 따라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한 뒤,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요소와 글쓰기 단계를 구성한다. 일반적인 글쓰기 과정은 글쓰기 전 단계에서 글을 구상하고, 글쓰기를 한 후 글을 고쳐 쓰고, 퇴고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디지털 자서전의 단계는 각 단계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야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에 적합한 지 함께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일부 단계가 생략 또는 변형될 때의 결과도 함께 확인한다.

1. 온라인 자서전 쓰기 사례와 분석

1) 해외 사례 <The Life Writer>, <Autodotbiography>

두 사례는 공통적으로 유료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디지털 지식이 없어도 사용이 편리하고 쉬운 글쓰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이렇게 만든 자서전은 책이나 디지털 문서로 발행된다. 또한 각 질문지에 대해 음성으로 대답을 하면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되는 기능⁸⁸⁾을 사용한다. 두 사례를 비교 정리했다.

88) www.thelifewriter.com/blog/how-use-auto-speech-text에서 이 기능과 사용법을 소개한다.

<표 7> 해외 자서전 글쓰기 사례 비교⁸⁹⁾

구분	A		B	
사이트	The Life Writer		Autodotbiography	
런칭연도	2007년		2011년	
창업배경	90세 아버지 생신 선물로 인생 이야기를 쓰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경험한 부부가 저렴한 비용과 자동화된 글쓰기 과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창업.		BBC 은퇴기자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 하던 중 가족들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가졌으나 대필 작가를 구할 수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자서전쓰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깨닫고 창업.	
사용료 (제작비용)	79달러(한화 약 9만원)		250파운드(한화 약 38만원)	
프로그램/ 개발사	Biography Book Writing Software ⁹⁰⁾		806 Software ⁹¹⁾ (집필프로그램) + Pylon Design (북디자인담당)	
제작단계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사에 관련된 수백 개의 질문에 음성으로 대답 • 음성 파일은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 가능 	1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면에서 제공하는 챗터별 생애사 질문지에 따라 인생의 각 단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글쓰기 또는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이미지 추가 • 자동으로 모든 콘텐츠를 서사 구조화된 장별로 나누고 이야기로 구성 	2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진과 관련 문서 추가하기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운로드해서 보관 또는 온라인으로 공유나 프린트기를 이용한 출력 	3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에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글을 써서 하드커버 책으로 발송

auto speech-to-text function 또는 STT(Speech To Text)로 알려진 것으로 소리 정보를 분석하여 문자, 명령어 및 다양한 형태의 정보로 변환해 주는 솔루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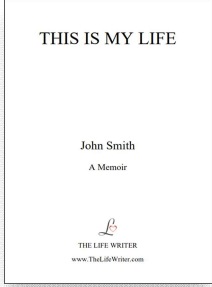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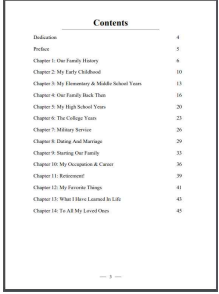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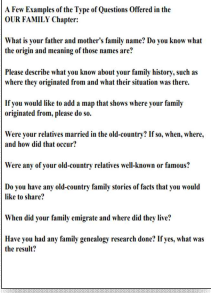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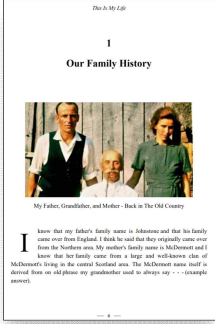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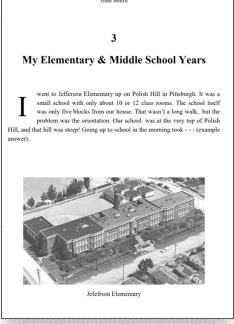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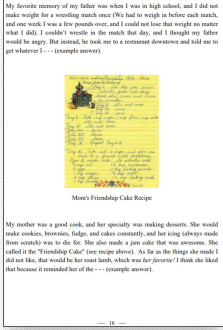
89) www.autodotbiography.com/about와 www.thelifewriter.com/about-us 내용을 번역 정리

90) <https://self-publishingschool.com/book-writing-software-best/>

91) www.806software.com

(1) The Life Writer

첫 번째 사례인 2007년부터 시작된 The Life Writer 웹사이트에서는 Biography Book Writing Software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글쓰기 과정이 쉽도록 작업을 단순화하여 개인 회고록을 출판하고 있다.

표지	목차	질문지
		
장 구분 및 사진 활용	인터넷 이미지 활용	편지 활용
		

<그림 9> The Life Writer 창작물의 예⁹²⁾

먼저, 인생사에 관련된 수백 개 질문에 음성으로 대답하면 텍스트로 자동 변환된다(auto speech-to-text function). 디지털 이미지를 추가하면 Life Writer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모든 콘텐츠를 서사 구조화된 장별로 나눠 회고록을 만들어 준다. 이를 온라인으로 발행하거나 프린트기를 이용하여 출력할 수 있다.

The Life Writer 웹사이트는 2018년에 웹 트렌드를 반영하여 기존의 웹 전용 사이트를 휴대전화 및 태블릿과 같은 다양한 장치에서 쉽게 접근하고 최적화

92) www.thelifewriter.com 이미지 인용

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했다.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성과 확장성을 목표로 가족이나 친구가 함께 회고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자동음성 텍스트 변환 기능을 추가하고, 편리한 전자 상거래 도입 및 디바이스 교차 사용에 최적화하였다.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모듈을 추가되었다⁹³⁾.

(2) Autodotbiography

Autodotbiography 웹사이트에서도 온라인 화면에 제시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자서전이 만들어진다. 2011년 BBC 은퇴기자인 브라이어 스쿠다모(Bryher Scudamore)는 자서전 사이트를 시작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브라이어는 가족들을 위한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을 위한 자서전의 필요성을 깨닫고 사업을 시작했다⁹⁴⁾.

먼저 웹사이트 관리자를 고용해 자서전 시스템을 만들고, 자신은 기자 경험을 살려 질문 구조를 디자인했다. 한 권당 제작비용 250파운드를 결제하면 12개월간 시스템 접속 권한이 주어지고, 일련의 질문에 대해 답변한 내용과 업로드한 사진과 문서를 바탕으로 자서전이 만들어져 고객에게 책이 배달되는 방식이다. 이전 영국에서는 주로 인터뷰 후에 대필로 자서전을 편집해 주는 서비스가 일반적이었다. 이는 보통 7백에서 3천 파운드의 비용이 들었다.

Autodotbiography를 이용하면 비용이 훨씬 저렴하고 작업 과정이 간단하다⁹⁵⁾. 로그인을 하면, 책을 구성할 모든 챕터의 제목과 질문이 제공되고 글을 쓰는 과정과 완성도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⁹⁶⁾. 특히 글을 쓸 때 웹사이트 상에서 음성으로 녹음하면 텍스트로 전환되는 기능이 있어 타이핑에 대한 부담을 덜어준다.

93) www.drupal.org/case-study/the-life-writer-online-book-writing-software 내용을 번역 정리. 개편 목적은 ①Market to a Wider Audience, ②Allow Collaboration Among Users ③Text-to-Speech Capability ④Convenient eCommerce Transaction ⑤Cross-Device Optimization ⑥Seamless Book Creation Experience ⑦Flexibility and Scalability이다.

94) www.autodotbiography.com/about, youtu.be/7iJYHHNJsak 참고

95) www.autodotbiography.com/what-they-say/saga-review Saga Magazine에서 다른 업체도 소개한다. Livesonrecord.com에서는 £700 비용에 인터뷰 촬영한 것을 60분짜리 CD로 제작하여 제공한다. 1991년에 시작된 Boundbiographies.com에서는 자서전 전문 출판사이다. 비용은 £3,000이며, 전문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자서전 쓰기 과정을 거쳐서 책을 출간하게 한다.

96) www.youtube.com/watch?v=OrDQT-uYZGs 참고 창업자가 직접 사이트 사용법과 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3) 평가 및 분석

<표 8> 해외 자서전 글쓰기 사례 평가

평가 기준	결과		의견
	A	B	
1.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	○	A, B 모두 인생 전반에 관한 수백 개의 질문에 대해 답을 하도록 한다.
2.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하는가?	X	X	인생 전반적인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하는가?	X	X	글을 구성하는 것은 A는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B는 전문작가의 몫이다.
4.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X	X	2의 내용으로는 플롯이 구성되지 않고, 모든 이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동일한 순서의 플롯을 가진다.
5.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이용하는가?	○	○	웹사이트에 접속한 경우만 글쓰기가 가능하다. 음성을 자동으로 텍스트로 전환하고, 사진과 문서를 업로드를 하여 디지털 화해야 한다.
6. 디지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가?	△	X	A의 경우는 디지털 문서로 저장, 보관이 가능하다. 사진과 이미지 이외의 다양한 매체를 선택하거나 공감각적인 표현은 불가능하다.
7.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이 이뤄지는가?	△	△	질문에 답을 하는 중에 가능하나 갈등에 대한 사건 전후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수 있다.
8.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가?	○	○	A는 글쓰기 단계에서부터 친구나 가족과의 협업이 가능해서 공감과 소통이 가능하다. B는 최종 결과물인 자서전 책을 나눠 주어야 가능하다.

*A: The Life Writer *B: Autodotbiography

(4) 종합

두 자서전 글쓰기 플랫폼 모두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을 통해 자서전을 구성한다. 기존 자서전 글쓰기에 비해 간단하고 수정이 용이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직접 타이핑을 하는 대신 음성을 텍스트로 전환할 수 있어서 글쓰기의 번거로움을 덜어주었다. 그러나 주제를 가진 플롯 구성이 아니라 시간 연대기적 사건의 나열로 자서전이 완성된다. 이 때 프로그래밍을 이용하거나 전문 작가가 온라인에 저장된 자료를 모아 선택, 배치하고, 텍스트를 구성한다. 따라서 자서전의 주인공, 체험자야는 직접 사건을 재구성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플롯을 구성하며 일어나는 자아통합 과정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다.

디지털 환경에서 글을 쓸 수 있으나 여전히 글쓰기의 어려움은 전문가나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형태이므로 궁극적으로는 글쓰기의 어려움이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결과물이 책이나 ebook 형태로만 가능하므로 디지털을 통한 다양한 자기표현이 제한되어 있다.

2) 국내 사례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1) 사례

국내 사례로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캠페인을 살펴보았다. 이는 2시간씩 4회 강의를 통해 부모님 자서전을 만드는 과정이다⁹⁷⁾. 2018년 서울시 50플러스재단에서는 삼성카드와 함께 글쓰기 모바일앱 ‘인생낙(樂)서’라는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을 사용해 ‘부모 자서전 쓰기’ 캠페인을 열었다⁹⁸⁾. 자녀가 직접 사전에 준비된 50개의 질문 문항에 맞춰 부모를 인터뷰해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기록한다. 이후에 관련 사진을 업데이트 하는 방식이다.

질문 내용은 고향에서의 기억에 남는 사건, 학창 시절 아쉽거나 후회되는 일, 젊은 시절의 가장 큰 도전과 그 결과, 결혼하게 된 과정, 아이 키우면서 힘들

97) <https://brunch.co.kr/@seoul/356>, www.50plus.or.kr/detail.do?id=1333981

98) 삼성카드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이다. 마이스토리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작성하고 공감스토리에 공유하거나 이곳을 통해 타인이 공유한 글을 볼 수 있다.

있던 기억,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결정, 자녀·손주들과 꼭 해보고 싶은 것 등이 다⁹⁹⁾. 작업 후 자서전 1권과 디지털 파일을 제공한다.



<그림 10> 인생낙(樂)서 '나만의 이야기' 글쓰기 화면¹⁰⁰⁾

<표 9>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제작 과정¹⁰¹⁾

회차	주제	내용
1	자서전은 왜 쓰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생략서 소개 및 글쓰기 실습; 인생질문 50개 답변 작성 가족스토리 '요즘 나에겐' 작성하기, 관련 자료, 사진 수집
2	부모님 자서전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모님 인터뷰하기 가족스토리 '고향과 가족, 성장과정' 작성하기, 관련 자료, 사진 수집
3	존중하는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진자료 활용법, 사진 스캔 및 업로드 가족스토리 '가족의 탄생, 가족의 완성' 작성하기, 관련 자료, 사진 수집
4	자서전 편집 및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집의 기술, 원고 다듬기, 교정 및 교열 제목 정하기, 원고 최종본 업로드

99) <https://50plus.or.kr/detail.do?id=1105490>

100) <http://blog.naver.com/skybbunilove/221177913924> 이미지 인용

101) www.50plus.or.kr/detail.do?id=4744664

(2) 평가 및 분석

평가 기준	결과	의견
1.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	인생전체 중 중요한 사건 위주로 시간적인 순서로 회상하게 된다.
2.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하는가?	△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이야기보다는 자녀에게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다.
3.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하는가?	X	자녀가 서술적 자아가 되어 부모가 경험한 것을 대필한다.
4.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X	사건과 사건 사이의 숨겨진 연결성을 찾거나 재해석할 수 없다.
5. 디지털 매체 환경을 이용하는가?	○	온라인 글쓰기 플랫폼을 이용하여 글쓰기와 편집을 한다.
6. 디지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가?	△	디지털화된 이미지나 사진 등을 쓸 수 있다.
7.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이 이뤄지는가?	X	글쓰기 과정에서는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겪은 과거의 자아를 현재의 자아가 만날 기회가 없다.
8.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가?	○	자녀가 직접 글을 써야 하므로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이해를 유도하게 된다.

<표 10>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 평가

(3) 종합

자녀에 의해 만들어지는 자서전은 디지털 환경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고 자녀와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족 간 이해를 얻고, 살아온 삶의 대해 존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부모를 단지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자녀가 저자와 화자의 역할을 하는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자서전 규약에서 벗어난다. 자서전은 저자가 주인공이 되어 들려주는 인성의 변화를 경험하거나 내면에 숨겨왔던 사건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또한 뉴실버세대가 가진 능동적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하고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다양한 자기표현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킬 수 없다.

2. 영상 자서전 제작 교육 사례와 분석

1) 해외 사례 <The Storycenter>

(1) 사례

‘The Storycenter’¹⁰²⁾는 90년대부터 미국 U.C.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된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로 이야기를 듣고 나누는 행위를 통해 삶과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곳이다¹⁰³⁾. 이곳에서는 짧은 비디오 형태로 자서전적 영상을 만들어 웹을 통해 출판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드는 영상은 개인의 삶을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창작가의 목소리 등을 통합해서 공감적으로 표현하도록 한다.

또한, 일정한 구조(플롯)를 갖춘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엄격함을 가지기 위해 분량을 250단어, 12장의 사진, 2분 길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결과물의 주제는 가족, 정체성, 관계, 공동체, 건강, 치유, 장소, 환경, 교육, 일, 사회정의, 인권 등이다. 이 센터에서는 온라인으로 또는 오프라인으로 2시간씩 6주 또는 하루 8시간 3일 교육 프로그램을 유료 워크숍 형태로 진행하고 있다¹⁰⁴⁾.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7개 단계 소개
- ② 그룹 공유와 피드백
- ③ 대본 작성과 목소리 녹음
- ④ 이미지 준비와 스토리보드 작성
- ⑤ 영상 편집: 전환, 효과, 음악, 제목
- ⑥ 2~4분짜리 디지털 스토리 생산 지원
- ⑦ 그룹 스토리 상영

102) www.storycenter.org/stories 참고 Joe Lambert와 Nina Mullan이 공동창립한 캘리포니아 버클리에 위치한 비영리 예술 지원 및 교육 센터이다. 일반인, UC 버클리 학생과 교수진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스토리텔링 작업에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한 워크숍도 진행한다.

103) We create spaces for transforming lives and communities, through the acts of listening to and sharing stories.

104) <https://www.storycenter.org/public-workshops/dsw>

이 센터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개인적인 내러티브를 공유하여 사회적, 제도적, 정책적인 영향력을 갖고자 다음과 같은 목표와 핵심 원리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¹⁰⁵⁾.

▪ 목표 :

- ①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인적인 회상과 성장
- ② 워크숍을 통한 교육과 개인적인 이야기가 학습과 인지에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에 대한 인식 향상
- ③ 시민운동의 형성
- ④ 공개적인 정책에 대한 토론과 지지, 연구와 평가에 영향 주기

▪ 핵심원리 :

- ① 모두에게 많은 이야기가 있다. 삶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은 화자나 시청자 모두에게 대단히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 ② 사람들은 들어줘야 한다. 소리를 듣는 것은 깊게 자리 잡은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연결 욕구를 충족시킨다.
- ③ 듣기는 어렵다. 사려 깊게 들어줄 때 스토리텔러가 당면한 문제의 핵심 안으로 여행할 수 있는 공간을 창조해낸다.
- ④ 사람들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듣고, 인식한다.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데 사용하는 형식과 접근 방식이 매우 다를 수밖에 없다.
- ⑤ 창조적 활동은 인간의 활동이다. 예술적 자기표현을 하도록 사람들을 고무시키는 것은 개인 및 지역 사회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 ⑥ 기술은 강력한 창의력 도구이다. 새로운 미디어와 디지털 비디오 기술이 어떻게, 왜 사용되고 있는 지에 대한 사려 깊은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105) Storycenter의 모토가 “Listen deeply, Tell stories”이다. Core Principles는 “①Everyone has many stories to tell. ②People need to be heard. ③Listening is hard. ④People see, hear, and perceive the world in different ways. ⑤Creative activity is human activity. ⑥Technology is a powerful instrument of creativity. ⑦Sharing stories can lead to positive change.”이다.

<https://static1.squarespace.com/static/55368c08e4b0d419e1c011f7/t/579121231b631b79c691b50b/1469128996958/Principles.pdf>

- ⑦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적인 내러티브는 시청자의 경험을 회상하게 하여 깊은 감동과 행동을 수정하게 하고, 다른 이를 더 큰 연민으로 대하고, 불의에 대해 말하게 하며 시민적, 정치적 삶에 관여케 한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해 제도적·정책적 차원에서 공유하는 것은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가진다.

(2) 평가 및 분석

<표 11> The Storycenter 자서전적 영상 평가

평가 기준	결과	의견
1.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X	특별히 노년 세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분량의 제한과 작업 시간이 짧아 전 인생보다는 주제별로 다뤄진다.
2.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하는가?	○	일부는 개인적, 사회적 갈등을 다룰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다.
3.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하는가?	○	직접 경험한 것을 본인이 직접 서술한다.
4.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	250분 단어와 12장의 사진으로 스토리보드를 작성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5. 디지털 매체 환경을 이용하는가?	○	디지털 스토리텔링 제작과정에 대한 디지털 매체 활용과 환경에 대한 교육을 함께 받는다.
6. 디지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가?	○	사진과 사운드, 본인의 목소리를 디지털로 전환, 편집하여 사용한다.
7.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이 이뤄지는가?	○	전문 스토리텔러의 도움으로 당면한 문제의 핵심을 이야기하게 된다.
8.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가?	○	그룹간의 공유, 웹을 통한 공개로 타인과 소통이 가능하다.

(3) 종합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의 짧은 비디오 영상은 자서전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 인생전체를 다루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 직면한 문제를 이야기 형태로 구성하여 영상으로 제작하여 타인에게 들려주고자 한다. 영상 제작 전 여러 차례 토의와 전문 스토리텔러의 도움으로 다듬어진 이야기로 만든 영상은 자기성장, 자기교육과 같은 체험의 기회가 되어 생애사 역량을 키워줄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은 앞서 소개한 디지털 스토리텔링 센터의 핵심 원리처럼 ‘깊이 들어주기’와 ‘이야기를 말해주기’에 집중하면서 한 개인의 이야기가 확장성을 갖게 된다. 스토리텔러와 그룹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이 만든 이야기를 타인이 듣고 공감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타인의 문제도 되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과거 사회 문화적, 역사적인 맥락에서 재인식하면서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게 된다. 이는 자신을 넘어서 이웃과 사회의 문제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고 후세를 위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사회참여로 이어진다.

2) 국내 사례 <영상 자서전 제작>,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1) 사례

노년층 스마트폰 사용자 증가로 국내 미디어 센터에서는 평생학습의 일환으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함께 스마트폰을 이용한 영상 자서전 만들기 강좌도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설된 2개의 영상 자서전 만들기 과정을 비교, 평가하고자 한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영상 자서전을 만든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하나 진행되는 교육내용에서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대전 시청자미디어 센터에서는 “영상 자서전 제작” 강좌를 4차에 걸쳐 진행한다. 시니어 대상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영상회고록 제작 교육이다. 영상기획과 원고 작성, 기록 영상 구성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정리법, 영상편집, 영상출력 및 발표의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¹⁰⁶⁾.

성남 미디어 센터에서도 시니어 대상의 미디어 교육 정규강좌인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강좌를 8차에 걸쳐 진행했다. 영상 프로그램 교육에 앞서 자서전의 의미와 인생사진으로 이야기 정리하기 등 자서전 글쓰기 관련 교육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¹⁰⁷⁾.

<표 12> 국내 영상 자서전 사례 제작 과정 비교

구분	A		B	
강좌제목	영상 자서전 제작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교육기관	대전 시청자미디어 센터		성남 미디어 센터	
차시/시간	4일, 4차시/총 8시간		4일, 8차시/총 16시간	
수강료	무료		48,000원	
차시별	(별도의 자서전 관련 교육은 없음)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지로 나 소개하기 • 영상자서전 감상하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서전의 의미 • 나의 인생 나무 만들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생사진으로 이야기 정리 • 자서전 사진목차 만들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 인터뷰하기 • 편집계획표 만들기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영상 이해 • 영상 기획 • 원고 작성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익히기 • 편집계획표를 보며 편집 • 배치, 자르고 붙이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셀프 인터뷰 촬영 • 자료수집 & 정리 • 편집 프로그램 환경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막과 음악 삽입하기 • 효과 적용, 영상 다듬기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촬영, 수집 자료 편집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완성하기 • 출력하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상 출력 방법 • 발표 & 평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 이야기 <영상자서전> 감상하기

106) kcmf.or.kr/comc/html/sub/before_register-view.php?globalCenter=daejeon&PCode=00002962

107) 2018년 4월 강좌 기준으로 일일 2시간 총 16시간 프로그램으로, 수강료는 48,000원이다.

www.snmedia.or.kr/education/

(2) 평가 및 분석

<표 13> 국내 영상 자서전 사례 제작 과정 평가

평가 기준	결과		의견
	A	B	
1. 인생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가?	X	○	A는 인생전체 대상으로 의도하지 않는다. B는 '나의 인생 나무'를 만드는 과정이 있다.
2. 과거 미해결된 갈등을 주제로 하는가?	X	△	A는 별도의 과정이 없다. B는 인생에서 시간별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을 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3.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하는가?	○	○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구성하고 영상 편집을 한다.
4. 플롯을 구성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	△	A는 영상 제작을 위한 원고 작성 단계일 뿐이다. B에서는 인생사진으로 이야기를 정리해보지만 글로 구성해보는 과정은 아니다.
5. 디지털 매체 환경을 이용하는가?	○	○	영상 제작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6. 디지털 매체를 표현 수단으로 하는가?	○	○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자신을 인터뷰하며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와 사진, 음악 등을 활용한다.
7. 내면의 자아와의 소통이 이뤄지는가?	X	△	B는 인생나무를 만드는 과정과 이야기 정리 과정에서 가능하나 갈등에 대한 사건 전후를 재구성하고 재해석할 기회는 없을 수 있다.
8.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가?	○	○	영상으로 제작하여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뤄짐. 차후 영상을 온라인으로 공유도 가능하다.

*A: 영상 자서전 제작 *B: 나만 아는 이야기 <영상 자서전>

(3) 종합

영상으로 제작되는 자서전은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린, 신(新)구어 시대에 맞게 자신의 목소리와 사진, 음악 등을 이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 온라인을 통해 공유하며 타인과 소통하며, 미디어를 활용 욕구에도 부합된다. 그러나 두 사례 과정의 제목 차이처럼 자서전을 쓰는 과정에서 '나만의' 이야기, 즉 충분한 내면의 소통을 갖지 못하면 자아통합을 이루지는 못한다. 디지털로 재현하는 교육과 과정에 중점을 두기보다, 내면에 묻어둔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질문과 글쓰기 과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3. 사례 분석 결과의 함의

뉴실버세대를 위한 디지털 자서전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노년세대의 과제인 자아통합을 이루고 둘째, 디지털을 이용한 자기표현과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자서전 쓰기를 통해 자아통합을 얻기 위해서는 글을 쓰기 전에 거치는 인생회고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현재의 자아가 과거의 자아를 만나 사건을 재구성하며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통합되어 “이 정도면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구나.”, “내가 성실하게 잘 살아왔구나.”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자신의 삶을 인정하게 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을 이루는 데 영향을 주는 구체적인 변수는 디지털 자서전의 형태나 길이, 어떤 매체를 이용했느냐는 것보다 인생회고 과정의 포함 여부와 글쓰기 과정에서 서술적 자아와 플롯을 구성하는 부분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을 통해 새로운 방법의 자서전 쓰기의 가능성도 볼 수 있다. 이를 다음 다섯 가지 내용으로 정리해보았다.

첫째, 사례 결과에서 인생회고의 시작은 여러 가지일지라도 완성을 해야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생회고를 시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일 수 있다. 인생사에 관련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거나 인터뷰, 인생 나무 등을 그려보는 방법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모두 기억을 불러서 인생회고를 시작하는 단계에 불과하다. 인생회고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적 순서로 나열된 기억의 자료가 아니라, 자신만 알고 있는 미해결된 과거의 갈등을 마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기억으로 소환된 사건을 평가하고 종합해야만 한다.

따라서 평가와 종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수동적인 인생회고는 자아통합으로 이어질 수 없다. 앞선 사례에서 본인의 자서전 쓰기에서 자녀에 의해 자서전이 완성되므로 수동적인 입장이 된 부모나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자동 생성된 자서전은 인생회고를 시작하나 이를 평가, 종합하는 과정이 없으므로 진정한 자아통합을 이룰 수 없다

둘째, 글쓰기 과정에서의 플롯의 과정 없이는 자아통합을 완성할 수 없다. 글쓰기 과정에서도 디지털로 저장된 이야기의 조각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

하는 것만으로는 플롯을 구성할 수 없다. 플롯을 이끌 주제와 제한된 틀에 따라 글을 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자아의 인성변화를 경험하고 과거와 현재의 자아통합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자서전 제작을 할 이야기가 구성되어야 뉴실버세대의 자서전 쓰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사례 결과를 통해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앞선 사례에서는 글쓰기 과정에서 사용한 오디오 파일을 텍스트로 전환하였다. 그러나 텍스트로 전환하지 않고 음성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디오 자서전을 제작하는 것도 새로운 글쓰기의 방식이 될 수 있다. 이 때 챗터별로 이미지와 음성 파일이 제공되면 본인의 목소리로 전달되는 감정, 분위기, 기분 및 어투 자체가 전통적인 자서전에서 나타낼 수 없었던 새로운 자기표현이 될 것이다.

넷째,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목적을 이룬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글쓰기 전(pre-writing), 글쓰기(during writing), 글쓰기 후(post-writing)으로 구성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와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 <표 14>와 같다. 디지털 자서전의 형태나 길이, 표현 방식과 상관없이 이 틀을 적용하여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할 때 바람직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표 14> 디지털 자서전 쓰기 구성 요소

글쓰기 전 - 인생회고	자서전 쓰기	글쓰기 후 - 디지털 내러티브
기억	자료 수집	디지털 이야기/결과물로서 내러티브
평가	플롯구성	사고양상으로서 내러티브
종합	글쓰기	커뮤니케이션으로서 내러티브
결과: 내면의 소통 → 자아통합		결과: 자기표현, 타인과의 소통 → 사회참여

마지막으로 짧은 영상 자서전으로 한 가지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 The Storycenter의 사례 중 아쉬운 것은 전 인생을 다루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하나의 긴 영상으로 인생전체의 주제를 다루기에는 그 작업과정 자체가 부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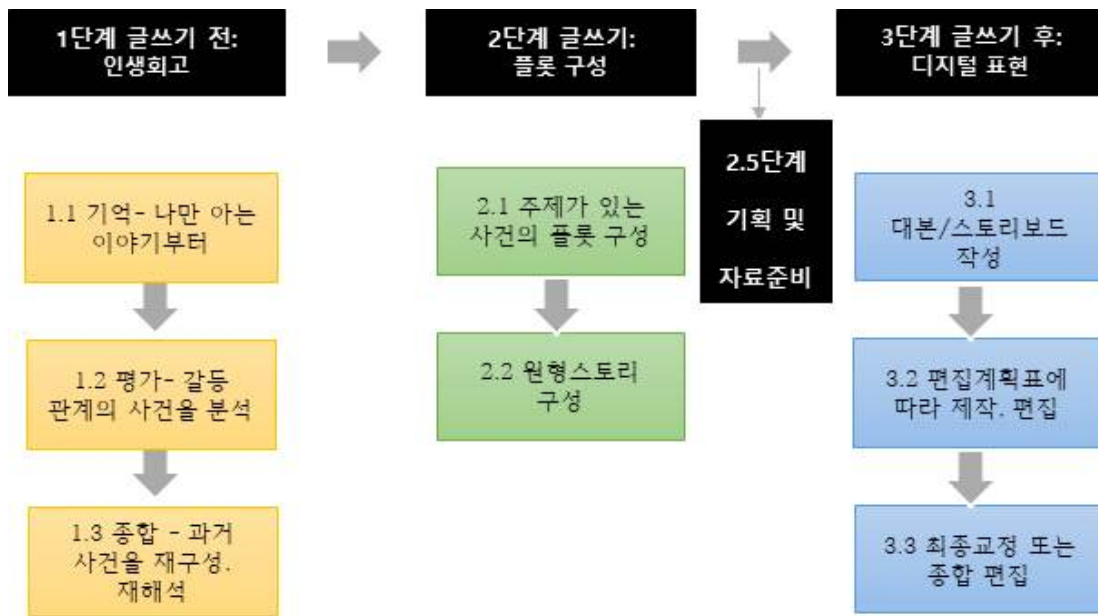
될 수 있다. 그 보완책으로 구조적 글쓰기 방식을 적용해 여러 가지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자서전을 완성할 수 있다. 구조적 글쓰기 방법처럼 인생전체에서 다루고자하는 다른 주제별로 짧은 영상을 우선 제작하여 여러 개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다. 영상의 소재로 사진뿐만 아니라 음악, 그림, 만화, 인터뷰 등 다양한 소재를 영상별로 각기 다르게 사용하여 자기표현의 기회를 확대하면 뉴실버 세대에게 더 적합한 디지털 자서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4. 디지털 자서전 쓰기 단계 제안

본 연구의 마지막에서는 균형 있는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3단계 과정을 제안한다.

1단계는 글쓰기 전 단계(pre-writing)로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미해결된 갈등의 기억을 주제로 평가, 종합하는 인생회고 단계이다. 인생회고를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미해결된 갈등으로 먼저 회귀하게 된다. 그 지점은 인생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이뤄야 하는 과거와 현재의 자아가 만나는 지점이자 이후 의지적으로 기억코자 하는 기억의 중심이다. 또한 글감을 준비하고, 관련 자료를 모아보는 단계이다. 인생회고는 전인생을 다뤄야 하므로 정확한 기억에 도움이 될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 배치,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수집된 자료가 유의미한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미해결된 갈등을 일으킨 사건에 대한 기억과 경험, 당시 상황과 주변 인물에 대해 보다 자세히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때 기억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정신생리학적,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등이 포함된 역동적인 과정이므로 사회문화적 사건, 역사적 사건도 함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연대표를 활용하여 중요 사건 위주로 정리하거나, 자서전 쓰기를 도와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자료를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여 온라인 자료를 활용, 수집 정리하는 것도 뒤의 글쓰기 작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림 11> 디지털 자서전 쓰기 단계

2단계(during writing)에서는 본격적인 글쓰기를 통해 앞 단계에서 종합 정리한 인생의 의미를 자서전 플롯으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플롯에 맞춰 원형 스토리를 먼저 구성해 본다. 이 단계에서의 플롯 구성은 1단계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건을 전후 관계를 살펴 재구성하여 내적구조를 만드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도 1단계에서 시작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2단계와 3단계 사이를 본고에서는 2.5단계라고 칭하고자 한다. 이 단계는 전통적 자서전 쓰기 단계와 크게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디지털 자서전 형태나 어떤 매체를 쓸 것인지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재정리하도록 한다. 이 때 이야기의 형태는 디지털 자서전의 형태에 따라서 분량, 서술방식,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글쓰기는 구조적인 글쓰기 방식을 이용하여 저장, 복사 등을 이용하여 수정과 편집을 쉽게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마지막 단계까지 어떤 활동이 필요한 지 <그림 12>에서 좀 더 살펴본다.



<그림 12> 자서전의 형태 선택

2.5에 이어 마지막 단계는 이야기를 디지털로 표현하는 것이다. 디지털 환경과 매체를 통한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를 원하는 대로 표현하고자 디지털 자서전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자서전 형태를 선택, 결정한 뒤에는 가지고 있는 원천 소스를 확인해서 추가 작업을 하거나 편집을 해야 한다.

2, 3단계의 플롯과 결과물은 1단계에서 나온 주제와 내용에 따라 한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 단계는 앞으로 매체 변화와 기술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1, 2단계는 그 원리를 지켜야만 디지털 자서전의 역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자서전의 확장성과 새로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하나의 매체를 여러 매체의 유형으로 쓰는 OSMU(One source multi-use)를 이용하여 여러 형태의 디지털 자서전을 기획, 구상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매체와 창작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복합예술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

“내 인생은 의미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기존의 자서전 쓰기에서는 어렵고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면 3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과정은 보다 쉽고, 즐겁고, 창의적인 여정이 될 수 있으라 생각된다.

V. 결 론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뉴실버세대가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통해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찾아 자아통합을 이루고, 자신을 표현하고 사회에 참여코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디지털 자서전 쓰기에서 고려해야 할 점과 글쓰기 단계를 제안하는 데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디지털 자서전 쓰기의 가장 중요한 점은 “듣기”를 통한 소통에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선 혼자만 알던 미해결된 과거 갈등의 사건 현장에 있던 자아의 이야기를 현재 자아가 들어주고, 이해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자아는 연결되고,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다. 동시에 자신의 방식대로 표현된 삶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는 외부와의 소통으로 사회참여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편리와 속도를 추구하는 디지털 시대에도 “**깊게 들어주고, 오래 들여다보고, 충분히 이해하기**”가 디지털 자서전의 진정한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본 연구는 먼저 디지털 자서전을 구성할 요소와 목적, 방식에 관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그 결과 얻게 된 고려사항을 기반으로 디지털 자서전 쓰기 평가표를 만들었다. 평가항목에 따라 국내외 디지털 자서전 사례를 분석하여 종합하는 과정을 거쳤다. 디지털 자서전 쓰기는 글쓰기 전, 글쓰기, 글쓰기후의 과정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임을 알게 되어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자서전 쓰기 과정을 3단계로 구성, 제안하였다.

2장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음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다. 첫 번째 질문은 “누가 디지털 자서전을 쓰는가?”라는 글쓰기 주체, 뉴실버세대에 관한 것이다. 이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높은 독특한 디지털 향유 방식의 미디어 욕구를

보이며, 사회참여, 여가활용, 자기표현의 도구로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뉴실버세대를 이해하는 키워드로 ‘디지털 미디어 욕구, 자기표현과 사회 참여’라 정해 보았다.

두 번째 질문은 “**뉴실버세대는 왜 디지털 자서전을 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 디지털 자서전을 써야 하는 목적은 첫째, 뉴실버세대 또한 자신의 생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자아를 존중할 때 갖는 느낌, 자아통합이 필요하다. 노년기에 일어나는 인생회고는 자아통합을 성취하는 주요 수단이며 과거를 재구성, 평가하며, 인생 전체의 과정을 다룬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은 디지털 내러티브를 통해 이뤄지는 데, 디지털 내러티브의 본질인 상호작용성은 커뮤니케이션의 가능성을 제공하여 뉴실버세대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구어적인 서술 방식을 되살려 놓는 동시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기표현의 영역을 확대시켜 준다. 이는 뉴실버세대가 가진 적극적인 자기표현과 디지털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다.

세 번째 질문은 “**디지털 자서전은 어떻게 써야 하는 가?**”이다. 언어적 형식 면에서 자서전은 ‘사건과 사건을 의미 있게 연결시켜주는 주된 플롯을 가진 이야기’이고, ‘서술적 자아와 체험적 자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는 자서전 쓰기 행위가 플롯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내적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내면의 대화를 통해 인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발달적 구조를 지닌 역동적인 과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과거 사건을 체험했던 순간의 과거 자아와 현재 자아가 만나 서술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자서전은 서술적 자아가 체험적 자아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마지막 질문은, “**디지털 자서전은 오늘날 어떻게 쓰여 지고 있는가?**”이다. 디지털화로 인한 글쓰기 방식의 변화를 살펴보면 각종 기관에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자서전 쓰기 강좌가 개설되고, 자서전 글쓰기 웹사이트 또는 앱을 사용하여 손쉽게 자서전을 쓸 수 있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작업을 하거나 결과물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공간이 제공되고 있다. 기존의 글쓰기와 비교하면 접근성과 편집의 용이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온라인 자료를 재조합할 수 있는 구조화된 글쓰기로 바뀌었으며, 텍스트 대신에 형상이나 음향 코드를 이용한 글쓰기가 실시간 쌍방향으로 이뤄지고 있다.

3장에서는 이론적 배경의 결론을 기준으로, 뉴실버세대의 디지털 자서전을 쓰기 위한 고려사항을 4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의 목적은 인생 전체를 회상하며, 미해결된 과거 갈등을 주제로 한 인생회고여야 한다. 둘째, 디지털 자서전의 글쓰기는 플롯 중심의 내적 구조를 가진 이야기를 구성해야 한다. 셋째, 디지털 자서전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자서전은 다양한 의사소통 목적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내면의 소통으로 과거와 현재의 자아를 연결하여 정체성을 회복하고 동시에 외부와의 소통으로 사회참여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4장에서는 국내외의 디지털 자서전 쓰기 사례 중 온라인에서 자서전 플랫폼 사례 3가지와, 영상 자서전을 제작 교육 프로그램 3가지를 분석 평가하였다. 평가를 위해 앞 장에서 도출한 고려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표를 만들었다.

분석한 사례들의 결과를 정리하며, 디지털 자서전으로서의 완성도는 글쓰기 후가 아니라 글쓰기 전 과정에 있음을 발견했다. 즉, 디지털 자서전의 형태나 길이, 어떤 매체를 이용했느냐가 아니라 인생회고를 완성도와 글쓰기에서 서술적 자아와 플롯을 구성하는 부분에서 생겨나는 것을 발견했다. 따라서 디지털 자서전 쓰기는 어떤 형태이든 **글쓰기 전 단계, 글쓰기 단계, 글쓰기 후 단계**의 전체를 유지하는 것이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디지털 자서전 쓰기 과정을 3단계로 나눠보았다. 1단계는 글쓰기 전 단계로 미해결된 갈등의 기억을 주제로 평가, 종합하는 인생회고 단계이다. 나의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과정이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글쓰기를 통해 플롯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플롯에 맞춰 원형 이야기 쓰기 한 뒤, 어떤 자서전 형태나 매체로 만들고 싶은지 기획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 재정리하도록 한다. 마지막 단계는 디지털 환경과 매체를 통한 자신이 발견한 인생의 의미를 원하는 대로 표현해 보는 단계이다. 디지털 자서전 결과물을 제작하는 단계이다. 2, 3단계의 플롯과 결과물은 1단계에서 나온 주제와 내용에 따라 한 가지 이상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또한 3단계는 앞으로 매체 변화와 기술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할 가능성이 높지만, 1, 2단계는 그 원리를 지켜야만 디지털 자서전의 역할과 의의를 살릴 수 있다.

2. 제언

본고에서 다루지 못했으나 몇 가지 차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디지털 자서전이 시대에 맞는 역할과 의의를 살리고 사용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연구와 개발이 계속 되어야 할 것이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Oxford Centre for Life-Writing Center 예처럼 자서전을 쓰는 작가와 연구자를 지원하고 여러 형태의 생애사 이야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미국 U. C. 버클리 대학의 스토리센터처럼 일반인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연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좋은 사례이자 그 자체가 새로운 연구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사용자들이 온라인의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화된 글쓰기의 편집이 쉽도록, 디지털 자서전 글쓰기 도구와 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도 계속 되어야 한다. 디지털 자서전이라도 글쓰기 단계는 글쓰기 전략과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별도의 교육이나 전문가나 글쓰기 도구의 도움 없이는 일반인에게 어려운 과정이다. 앞서 소개한 사례에서 온라인 자서전 쓰기 플랫폼인 <The Life Writer>, <Autodotbiography>과 <천개의 스토리, 천권의 자서전>이 이를 돕기 위한 좋은 사례로 보인다. 그 결과물을 책이나 텍스트 형태가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매체가 되도록 응용해 볼 수 있다. 특히 노년의 도구 조작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음성으로 글을 쓰면 텍스트로 전환이 가능한 장치나 인생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한 답변만으로도 충분한 인생회고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거칠 수 있다. 음성 자체만으로도 자서전을 제작할 수 있다면 디지털 내러티브가 가진 구술성을 살려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새로운 교육에 대한 욕구를 가진 노년세대를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다. 1) 디지털 내러티브를 이용한 자서전 쓰기 교육과 2) 다양한 모델을 활용하여 디지털 자서전을 만드는 단계별 교육 3) 기억-평가-종합하는 사고훈련을 위한 교육 방법 연구도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예술 매체를 활용하여 결합하는 과정도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디지털 자서전을 통해 각 세대 간의 문제점, 시대의 고민과 삶의 지혜

를 공유할 수 있는 사용자간의 소통을 위한 사이버 공간을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도 자연스럽게 등장할 것이다. 디지털 자서전의 궁극적인 목적은 내면의 소통과 외부와의 소통을 동시에 추구하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자서전을 만드는 과정은 자신의 내면에 있고 지내던 과거의 자아의 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어두운 곳에서 상처 입은 자아를 먼저 회복시킨다면 또한 다른 이의 소리도 들을 여유 공간이 생길 것이다. 앞의 사례 중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시작된 <The Storycenter>에서는 2분짜리 디지털 자서전 영상을 공유하여 타인의 문제를 듣는 중에, 자신의 문제를 들여다보게 되고, 개인의 문제가 사회와 커뮤니티의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 의식이 시민운동으로 이어지고, 제도적, 정책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본 연구를 마무리하며, 본 논문의 의도가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새로운 도구 개발 및 연구에 반영되길 희망한다. 본 연구의 결과가 글쓰기가 어렵고 터놓을 곳이 없어 힘들어하는 이들의 자아존중을 회복하고, 가족과 이웃과의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특히, 그동안 자서전 쓰기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시각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서도 오디오로 제작 과정이 안내되고, 본인의 음성으로 쓴 오디오 자서전 형태가 개발된다면 본인의 삶을 수용하고, 가족들에게도 큰 선물이 되리라 믿는다.

또한 주변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사회적인 사건으로 인한 아픔과 상처를 묻어둔 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 미국의 스토리센터와 같이 디지털 자서전이 공유되어 소통의 장을 열면 제도적, 정책적인 차원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노년 세대뿐만 아니라 내면과 사회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이민자,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단행본》

- 빌렘 플루서(Vilém Flusser), 김성재역(2001), 『코뮤니콜로지: 코드를 통해 본 커뮤니케이션의 역사와 이론 및 철학』, 커뮤니케이션북스
- 슈단첼(Franz K. Stanzel), 안삼환역,(1990) 『소설형식의 기본유형』, 탐구당
- 이인화(2014), 『스토리텔링 진화론』, 해냄
- 필립 로쥘(Philippe Lejeune), 윤진 옮김(1998), 『자서전의 규약』, 문학과지성사
- 한기호(2013), 『기획회의(337호)』 중 스마트 시대의 글쓰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한정란, 조혜경, 이이정(2004), 『노인 자서전 쓰기』, 학지사
- Erikson, E.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Jerome Bruner(1987), 『Actual Minds, Possible Worlds』, The Jerusalem-Harvard Lectures World
- United Nations New York(2017), 『World Population Ageing [Highlight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 Water J. Ong(2002),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Routledge

《논문 및 연구자료》

- 강경진(2019), 「노래자서전이 노인의 우울 및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 노인요양병원의 노인들에 대한 사례」, 동아대학교
- 강성관, 반수경, 차준섭(2013), 「뉴실버 세대를 위한 융합형 스마트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 (사)한국스마트미디어학회, 13-26쪽
- 김남원(2010), 「회상집단상담이 노인의 자아통합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 김문정(2016), 「뉴 실버세대를 위한 사진교육 연구-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의 노년기 자아통합감을 중심으로」, 한국사진학회, 제37권, 45-48쪽
- 김수영(1999),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제11권, 제1호, 50-62쪽
- 김영진(2014), 「디지털 내러티브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1권, 제4호, 89-111쪽
- 김유정(2015), 「페이스북에서의 자기과시적인 자기표현」,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논문지, 제16권, 제4호, 503-512쪽
- 김주환(2015), 「재조합의 글쓰기에서 구조적인 글쓰기: 글쓰기 인지질차의 계획단계를 보조하여 탄탄한 구조를 만드는 글쓰기 방법과 도구의 제언」, 서울대학교
- 김진수, 최방호, 조기환(2019), 「산업 영역에서 빅데이터 개인정보 보호체계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8권, 제1호, 9-18쪽
- 김현주(2000),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우울, 고독감에 미치는 영향」, 세종대학교
- 김탁환(2008), 「디지털시대 전통 기록과 스토리텔링 연구」, 국문연구, 제12집
- 류철균(2001), 「한국 현대 소설 창작론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류한조(2019), 「생애기억 아카이브를 이용한 노인의 자서전-쓰기 콘텐츠 기획 연구」, 건국대학교
- 박민정(2006), 「내러티브란 무엇인가?: 이야기 만들기, 의미구성, 커뮤니케이션의 해석학적 순환」, 아시아교육연구, 제7권, 제4호, 27-47쪽
- 박성희(2016), 「노인 자서전쓰기에 나타난 생애사학습의 의의」, 질적탐구, 제2권, 제1호, 181-204쪽
- 박용익(2006), 「이야기란 무엇인가?」, 텍스트 언어학, 제20호, 141-161쪽
- 배강대(2003),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 백유신(2018), 「인생 회고를 통한 음악자서전 활동이 초고령 노인의 우울감 개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 삼성경제연구소(2012), 「실버세대를 위한 젊은 비즈니스가 뜬다」, CEO Information, 제869호
- 원철(2013), 「차이와 생성으로서의 디지털 서사: 공감각적 내재성」, 인문연구, 제69호, 525-550쪽
- 유성경, 김유진(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

육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제16권, 제2호, 53-75쪽

윤영미, 박혜영.(2018), 「노래자서전 음악활동이 노인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예술심리치료 연구, 제14호, 1권, 27-46쪽

이가옥, 이현송(2004), 「노년기 자아통합 집단 프로그램 개발: ‘나의 살아온 이야기’」, 한국노년학, 제24권, 제1호, 37-52쪽

이동성, 김영천(2014), 「생애사(life history) 연구에서의 일곱 가지 글쓰기 전략」, 초등교육연구, 제27권, 제4호, 77-103쪽

이은경(1992), 「노인의 회상을 통한 자아통합현상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충훈, 정재욱(2014), 「세대간 스마트폰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비교·연구: 뉴실버 세대와 넷세대를 중심으로」, 정보시스템연구, 제23권, 제4호, 49-74쪽

이현림, 배강대(2004), 「회상기법 집단상담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5권, 제2호, 409-421쪽

이호규(2011), 「페이스북의 정체성에 대한 탐색적 시론」, 사이버 커뮤니케이션학보, 제28권, 제4호, 129-172쪽

임순철(2015), 「노년세대 미디어로서의 자서전에 대한 연구: 자서전 쓰기를 통한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광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전경란(2003), 「디지털 내러티브에 관한 연구: 상호작용성과 서사성의 충돌과 타협」,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다미, 이충권(2015),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의 지속적 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스마트미디어저널, 제4권, 제1호, 44-51쪽

정승일(2012), 「노년기 그룹 자서전 쓰기 활동 참여자의 배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혜진(2007), 「자서전쓰기 교육방법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지행중(2011), 「자서전에 나타난 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경도(2008), 「자서전 연구의 성격과 전망」, 영미문학교육, 제12집, 제1호, 129-146쪽

최선녀(2014),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서전 쓰기 교육」, 교양교육연구, 제8권, 제5호, 97-130쪽

한기호(2013), 「스마트 시대의 글쓰기」,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기획회의, 제337호

허원희(2012), 「뉴실버세대의 디지털미디어 수용과정에서 감성적 가치 요인이 미치는 영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Abigail Sellen and Steve Whittaker(2010), 「Beyond Total Capture: A Constructive Critique of Lifelogging」, Communication of the ACM, vol. 3, pp. 70-77

Butler, R.(1963), 「The Life Review: An Interpretation of Reminiscence in the Aged」, Psychiatry, vol. 26, no. 1, pp. 65-76

Dan P. McAdams and Kate C. McLean(2013), 「Narrative Identity」,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vol. 22, pp. 233-238

McAdams, D. P.(2001). 「The psychology of life stories.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 5, no. 2, pp. 100 - 122

Michael Hardey(2004), 「Digital Life Stories: Auto/Biography in the Information Age」, Auto/Biography, vol. 2, no. 3, pp. 183-200

Rankin, J.(2002), 「What is Narrative: Ricoeur, Bakhtin, and Process Approaches, Concrecence」, The Australasian Journal of Process Thought, vol. 3, pp. 1-12

Robert A. Hall, Jr.(2015), 「Reviews: Orality and literacy: The technologizing of the word. By WALTER J. ONG」,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pp. 625-630

Sarah Poole, John Snarey(2011), 「Erikson's Preschool Stage of Social-Emotional Development」,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pp. 599-603

Ümit Kennedy(2017), 「The Vulnerability of Contemporary Digital Autobiography」, ABA Graduate Student and New Scholars Network: What's Next?, pp. 409-411

Webster J. D. & Young R. A(1988), 「Process Variables of the Life Review: Counseling Implication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vol. 26, no. 4, pp. 315 - 323

《웹 사이트》

I. 서론

초고령 사회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608087711b>,
어르신들의 자서전 출간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3/07/2019030702219.html
내 영혼의 자서전 <http://omn.kr/o6z7>
사회적 기업 꿈틀 www.memorialbook.kr/default.asp?sub_code=body01
인천시 강좌 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15712
나의 음악자서전 만들기
www.ganghwa.go.kr/open_content/bbs/bbsMsgDetail.do?sessionId=9D0CA1783FFB0F88A3FAFA8DA069DB8A?msg_seq=4019&bcd=classroom&pgno=155
늦깎이 학생 만화자서전 www.localnaeil.com/News/View/505143
영상회고록 제작 교육
https://kcmf.or.kr/comc/html/sub/before_register-view.php?globalCenter=daejeon&PCode=00002962
영상자서전 만들기 www.snmedia.or.kr/education/
사진·영상 자서전 제작 전문가과정 www.mk.co.kr/news/economy/view/2017/10/672627
인생낙(樂)서 <https://50plus.or.kr/detail.do?id=1105490>,

II. 이론적 배경

필립 로쥘 www.scribd.com/document/221471187/Philippe-Lejeune-the-Autobiographical-Contract
플루서 www.flusserstudies.net/tags/digital-shift/
라이프로깅 <http://blockchainai.kr/client/news/newsView.asp?nBcate=F1008&nMcate=M1001&nIdx=29642&cpage=22&nType=1>
How Facebook Can Amplify Low Self-Esteem, Narcissism And Anxiety(2014),
<https://raywilliams.ca/how-facebook-can-amplify-low-self-esteem-narcissism-and-anxiety>
신(新) 구어 시대 <https://m.blog.naver.com/khhan21/110067118455>

III. 디지털 자서전 쓰기를 위한 고려 사항

소셜의 양상 www.storyinsight.com/techniques/media/forster.htm
그래픽 오거나이저 <https://www.edrawsoft.com/share-graphic-organizer.php>
플롯 다이어그램 <http://paigehohlt.me/print/best-revered-printable-plot-diagram>

IV. 디지털 자서전 쓰기 사례 분석과 제안

온라인 디지털 자서전 쓰기 www.autodotbiography.com, www.autodotbiography.com/about,
youtu.be/7iJYHHNJsak, www.autodotbiography.com/what-they-say/saga-review
글쓰기 소프트웨어 www.806software.com
온라인 디지털 자서전 쓰기 www.thelifewriter.com,
www.drupal.org/case-study/the-life-writer-online-book-writing-software
자기출판 프로그램 <https://self-publishingschool.com/book-writing-software-best>
자서전 캠페인 <https://brunch.co.kr/@seoul/356>, www.50plus.or.kr/detail.do?id=1333981
디지털 스토리 센터 www.storycenter.org/stories
대전 영상 자서전 강좌
https://kcmf.or.kr/comc/html/sub/before_register-view.php?globalCenter=daejeon&PCode=00002962

【Abstract】

A Study on Writing Digital Autobiography of New Silver Generation

by Seoni Joo

**Department of Storytelling
GRADUATE SCHOOL OF SOCIAL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anil Kim

Writing an autobiography is like a journey to find the answer to the question, "Did my life make sense?" By re-examining past experiences, you gain positive self-image when you value and accept your life as a worthwhile life. As a result, you are empowered to see the positive and desirable aspects of the rest of your life away from the despair that comes before you.

In the later stages of life, autobiography writing research and programs have been developed and used in Korea and abroad for a long time. In recent years, as the number of older smartphone users increases, writing autobiography using photo and video on smartphones and campaigns for autobiography writing through mobile are also introduced. There are also services that provide autobiography, which is created automatically with the help of digital writing tools, and autobiography that families create together.

This study started from the problem that digital autobiography is spreading widely but even the concept and significance of digital autobiography is not discussed systematically.

First, I tried to find the answers to the following four questions through theoretical background studies in order to define the concept of digital autobiography for the New Silver Generation.

The first question is "Who writes digital autobiography?". It's about the New Silver Generation, the author of digital autobiography. They showed the media desire of unique digital enjoyment method. And I found that they are using mobile devices as a tool for social participation, leisure use and self-expression.

The following is the purpose of writing a digital autobiography, "Why should the New Silver Generation write a digital autobiography?" The purpose is firstly for Integrity(self-integrity), a developmental task of old age, according to Erikson. Butler said that self-integrit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life review. Previous research shows that the same experience can be achieved through writing autobiography. Second, digital autobiography is based on digital narrative. Interactivity, the essence of digital narrative, offers the possibility of communication to meet the needs of the New Silver Generation. Third, digital autobiography revives oral narrative and expands the domain of self-expression through various media. This is enough to satisfy the needs of the New Silver Generation's active self-expression and digital media.

The third questions is about the linguistic form and writing style of digital autobiography, "How should I write a digital autobiography?" Autobiographical writing should compose a story with a main plot that connects events with events and the narrative self and the experiential self must be in agreement. Writing an autobiography is a process of making the internal structure of a story centered on a plot. It is a dynamic process

with a developmental structure that experiences a change of personality through internal dialogue. The past self from the moment the event occurred and the present self already experiencing the event meet to reconstruct the event and form the future self.

The last question is about the aspects and features of digital autobiography, “How is the digital autobiography being written today?” There is also a change in the way we write because of digitization. Advances in digital media have made writing more accessible and easier to edit. In addition, the use of online data instead of traditional data, and instead of linear writing method has been changed to recombining structured writing. Writing using images or sound codes instead of alphabetical codes is being done in real tim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from the theoretical background, I would like to suggest four points to consider in digital autobiography writing to achieve self-integrity. First, the purpose of digital autobiography is to look back on one's life, and it is necessary to take a sequential process of looking at the cycles of the whole life on the subject of unresolved memories. Second, digital autobiography can be seen as a story line with a plot of his life material. Third, the self-expression can be expressed in various ways through the use of synesthesia media. Lastly, digital autobiography can be a space for realizing various communication purposes thanks to the interactivity of digital narrative.

The following is a case study based on a digital autobiography writing evaluation table based on considerations. According to the evaluation item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gital autobiography cases were analyzed and synthesized. I suggest digital autobiography writing is the most effective when it maintains the framework of the process of pre-writing, during-writing, and post-writing.

The pre-writing stage is for the life review that evaluates and

synthesizes unresolved conflicts as subjects. It is an important and essential process of finding the meaning of my life. In the next step, the original story plot is constructed through authentic writing. In the post-writing stage, students collect and organize materials according to their desired media and produce the result in the desired expression method.

The research found that the ultimate goal of writing a digital autobiography was to communicate through listening. The present self listens to the story of the past self at the scene of the unresolved conflict hidden in the mind, and the self of the past and the present reconstruct the identity together. At the same time, the desire to participate in society can be satisfied by communicating with the outside and listening to the stories of life expressed in the ways they want. In the digital age of convenience and speed, deep listening, deep seeing and fully understanding give the true role and meaning of digital autobiograph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help young people and immigra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who are having difficulty communicating with their daily lives and society, as well as older people, to identify their own identity and to plan and operate programs for them.

In addition, I hope that the planning spirit of this paper will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various tools and methods for those who have been alienated from traditional autobiography writing. I also look forward researching new methods of digital autobiography for those with visual disabilities or those who cannot write autobiography by hand.